개인부문 1

반복되는 현장의 실수를 예방교육으로, 선제 대응하다!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조금 등 역량강화 교육 -

사례내용

추진배경

○ 관내 지역아동센터(46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센터에서 유사한 오류와 문의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잘못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최근 3년간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내역

(단위: 개소, 개소, 천원)

구분 (단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의	행정처분	환수액	주의	행정처분	환수액	주의	행정처분	환수액
건/개소/천원	19	-	1,037	36	1 (사업정지)	1,559	34	5 (개선명령 4) (사업정지 1)	14,770

○ 46개소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 오류와 현장 종사자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직접 분석하여 교육자료로 재구성하여 '현장 맞춤형 보조금 역량강화 교육'을 자체 기획.추진

추진내용

○ **46개소 현장점검 결과를 교육자료로 전환**

- 교육내용: ① 2026년도 보조금 및 각종 수당의 교부.지급시기 안내
  ② 인건비 교부신청 및 지급 시 주요 유의사항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례
  ④ 현장 종사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⑤ 각종 보조금 정산 관련 실무 안내: 보탬e시스템 결산 등록 등

○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관 협업**을 통한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행정방식 전환**

주요성과

○ 현장점검 결과를 활용한 **실질적인 오류 예방**

○ **최소 비용으로 높은 행정효과** 창출

○ **보조금 투명성**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지역아동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종사자의 경력, 회계업무 경험 등이 달라 동일한 지침에 대해서도 이해도의 차이가 있음.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 재구성해야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 가중 ❍ 시설의 특성상 종사자들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교육 참여율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교육 만족도 조사 기타의견) 교육 일정과 식재료 배송시간이 겹침 ❍ 교육방식은 종사자의 관심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우므로 실용적인 교육방식 마련 등 대안마련 필요. ➪ **(대안)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회계길라잡이"책자 발행**
	극복 노력	❍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자체 교육자료 발굴** ❍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 ➪ 전체 종사자의 59%가 참여, 교육 만족도 설문 결과: 88.3% 만족
	기타 에피소드	❍ 이번 사례는 담당 공무원이 주어진 지도.점검 업무를 단순히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와 오류에 대한 원인을 직접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을 스스로 기획.실행했다는 점 ❍ **『현장점검→교육→예방→환류』의 지속가능한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

참고1 보도자료 - 2025. 9. 24.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조금 역량 강화 교육

회계·집행 사례 중심 교육…투명한 운영으로 아동복지 신뢰 제고

군산타임즈()2025-09-24 10:16:48

군산시와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4일 종사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회계 처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실제 점검 사례와 반복 지적사항 예방 방안 등을 공유해 현장 적용도를 높였으며,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조금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로 아동복지 신뢰도 제고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 등록 2025.09.25 19:36:49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채현주, 이하 '협의회')가 24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조금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보조금 집행 및 회계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개인부문 2

자동신청에 안주하지 않고, 사각지대 502가구를 찾아 목표를 넘기다

—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

사례내용	추진배경	❍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에 국산 신선 농식품 구매 이용권을 지원하는 먹거리복지 사업임 ❍ 2025년 첫 시행은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로 계획 659가구 중 640가구(97.1%) 지원에 그쳐 사업비 잔액을 반납함(2025년 보조금 정산검사) ❍ 2026년은 2025년 수급가구가 자동신청으로 이월되었으나, 자동 이월분은 637가구로 목표(1,139)의 55.9%에 불과 → 목표를 채우려면 신규 502가구 이상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 **(미신청 가구를 찾아가는 단계별 신청 지원)** 신청 창구부터 가맹점 계산대까지 각 단계를 점검하여 지원 대상 누락과 예산 잔액 반납을 방지 - **(대상 발굴)** 미신청 152가구를 명단으로 관리하고 실거주지 안내 우편·리플릿 발송, 문자(109건)·전화(24건) 개별 독려. 경로장애인과·복지정책과 연계로 임산부·영유아 누락 점검 - **(읍면동 관리)** 27개 읍면동에 신청 순위·금액 공유(상위 5개동 57.2% 점유 등)로 자율 참여 유도, 미신청 사유 사전 조사 - **(현장 안내)** 세부기준 안내문·리플릿 3차 배부(누계 1,700부), 통·이장단 회의 홍보, 소액(3~4천원) 잔액 소진 안내 - **(결제 지원)** 지정 가맹점 6개소(로컬푸드·하나로마트)에 지원품목 안내문·리플릿(300부) 비치, 국산 품목 결제 안내 ❍ **(신규 신청·자격 정기점검)** '26년 신규 신청 288건을 접수·심사하여 265건 승인(미승인 23건은 자격심사 적용). 매월 22일 기준 전 가구 자격을 점검·승인하여 다음 달 1일 충전, 자격 미달 가구(전출·소득초과) 정리로 예산 낭비 차단

○ **(사용처 확충)**

상시공모 전환('26.6.8.~)·요건 완화(취급품목 3→1개, 정육점·전통시장 허용) 활용, 관계부서 협조로 사용처 420개소(관내 411·온라인 등 9) 확보, 6~7월 신규 가맹점 3개소 등록

○ **(일선 업무 표준화·부정수급 예방)**

aT-지자체 합동 사용처 현장점검('26.5.4.~6.12.) 참여, 읍면동용 민원응대 FAQ 제작·이의신청 서식 개정('26.6.)으로 처리 기준 통일

○ **(제도·시스템 개선 건의 4건)**

현장에서 확인한 한계를 개선안으로 정리하여 전담기관·상급기관에 건의

- 지원대상 확대(생계급여 수급가구 전체)·자체재원 시범사업 도입, 대상별 통계기능 신설, 잔액 소멸 임박 알림톡,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 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지급액'→'집행률'로 개선 요청(요청서상 담당자 본인 명기), 먹거리위원회 분과협의회('26.5.28.~29., 31명)에서 지원대상 확대 건의

주요 성과

핵심 성과			
목표 달성	**예산 사용률**	**지역 소비 창출**	**신선·국내산**
1,146가구 (100.6%)	**83.6%**	**668.7백만원 (68,646건)**	**92.9% / 178품목**

【계량적 성과】

구 분	이전 (2025년)	이후 (2026년)
지원 실적	**640가구 (계획 659, 97.1%)**	**1,146가구 (목표 1,139, 100.6%)**
대상 규모	659가구	1,139가구 (73% 확대)
예산 집행	**잔액 반납 발생**	**지급액 대비 사용률 83.6%**

< 목표 달성의 실제 과제 : 신규 502가구 확보 >

지원가구 구성('26.6월)	가구수	비중
2025년 이월 자동신청	637가구	55.6%
2026년 신규 확보	**509가구**	**44.4%**
계	**1,146가구**	**100.0%**

○ 목표 초과: '26.6월 기준 지원 1,146가구, 목표 1,139 대비 100.6% 달성.

대상이 73% 확대된 상황에서 초과 달성

		※ 추진실적통계 누계 기준 1,145가구(100.5%)와 일치(집계 기준시점 차이 1가구) ❍ 자동 이월분 637가구는 목표의 55.9%에 불과 → 신규 502가구가 필요, 실제 509가구를 새로 확보하여 목표 초과. '자동신청'에 안주하지 않은 발굴·자격관리의 결과 ❍ 청년(1992~2007년생) 가구 신규 편입 → 아동·임산부 중심에서 청년까지 지원 확장
업무담당자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① **(부임 직후 두 회계연도 병행)** 2025. 7. 28. 발령과 동시에 '25년 정산(잔액·이자 반납)과 '26년 확대 시행 준비를 병행. 인수 초기부터 정산·집행·교부가 동시 진행 ② **(자동이월로 목표 미달)** 자동 이월 637가구는 목표의 55.9%뿐이어서, 나머지 502가구 이상을 신규로 확보하지 못하면 전년처럼 미달·반납이 불가피한 구조였음 ③ **(지침 대폭 개정)** 청년 신규 지원, 사용처 상시공모, 이의신청 사유 확대, 취소·환급 기한 연장 등 '26년 지침 전면 개정으로 시행 초기 현장 혼선 ④ **(접촉 곤란 가구)** 연락 두절·결번·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안내가 닿지 않는 미신청 가구 존재 → **신청주의 제도의 구조적 사각지대** ⑤ **(통계 간 수치 불일치)** 누계 지원가구·현시점 활성 가구·정산 시점 차이로 지표 간 값이 달라, 보고 수치를 확정하려면 항목마다 원천자료 교차 확인이 필요
	극복 노력	① 부임 초기부터 '25년 정산과 '26년 집행을 병행하며 반납 기한을 준수하고 집행 공백 없이 관리 ② **미신청 152가구 개별 독려**와 신규 신청 288건 접수·심사(265건 승인)로 **신규 509가구를 확보** → 부족분을 메우고 목표 초과 달성 ③ 2025·2026 지침 **신·구 대비표를 만들어** 공유하고 **이의신청 서식·절차를 정비 → 행정·전산 오류로 못 받은 지원금을 사후 구제할 근거 마련** ④ 문자→전화→안내우편→마을 이장 전달로 수단을 바꿔가며 반복 접촉하고 연락처 현행화로 안내 **누락 차단** ⑤ **지원가구통계·신청승인통계·지원금액통계 등 원천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수치를 확정하고, 누계·활성·자동/신규 구분을 명시해 보고 일관성 확보

	기타 에피소드	❍ 연락이 닿지 않아 명단에만 남아 있던 가구를 끝까지 확인한 결과, 가구주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전화 한 통으로 사정을 확인한 뒤에야 안내가 닿았고, 명단 뒤에 이런 개별 사정들이 있음을 실감함

[증빙자료]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성과 입증자료(데이터 근거)

출처: aT 농식품바우처 시스템 추출자료(2026. 6월 기준) —

지원가구통계 · 신청승인통계 · 지원금액통계 · 품목별소비현황 · 기간별소비현황 · 가맹점목록 · 보유회원명단 · 신청독려결과. 모든 수치는 원천자료에서 직접 추출 · 계산 · 교차검증한 값임.

□ 1. 목표 달성과 지원가구 구성(지원가구통계)

구분	목표	지원('26.6월)	달성률	구성
군산시 계	1,139가구	**1,146가구**	**100.6%**	자동 637 + 신규 509

※ 자동신청(2025년 이월) 637가구는 목표의 55.9%에 불과. 목표 달성에는 신규 502가구가 필요했고 실제 509가구를 확보하여 초과 달성. 추진실적통계 누계 기준 1,145가구(100.5%)와 일치(기준 · 시점 차이). 조촌동 76가구(계획 75, 101.3%) · 수송동 158 · 나운3동 172 등 도심 대동 중심 집행.

□ 2. 신규 신청 처리 실적(신청승인통계, 2026년 신규분)

구분	신청건수	승인건수	미승인
2026년 신규(누계)	288건	**265건**	23건

※ 자동 이월분과 별개로 2026년 중 신규 신청 288건을 접수 · 심사하여 265건 승인. 미승인 23건은 자격심사(전출 · 신청자격 중지 등)를 실제로 적용한 결과로, 부적격 지원 차단의 근거.

□ 3. 예산 집행 — 배정 대비 사용률(지원금액통계)

배정(충전) 누계	사용 누계	사용률	산식
538,236,560원	**450,106,656원**	**83.6%**	사용 ÷ 배정

□ 4. 지역경제 파급 — 소비 창출 · 자부담 유발(품목별 · 기간별 소비현황)

카드 결제 총액	바우처 지원액	이용가구 자부담	자부담 비중	구매 건수
668,674,439원	450,106,656원	**218,567,783원**	**32.7%**	68,646건

※ 바우처 450.1백만원에 이용가구 자부담 218.6백만원(32.7%)이 더해져 관내 농식품 소비 총 668.7백만원 창출(자부담 = 카드 결제 총액 − 바우처 지원액).

□ 5. 소비 품목 구성 — 신선 · 국내산 실집행(품목별소비현황)

품목류	구매금액	금액비중	비고
육류	431,196,227원	64.5%	신선
채소류	110,396,379원	16.5%	신선
과일류	41,208,664원	6.2%	신선
신선알류	38,541,067원	5.8%	신선
잡곡 · 우유 · 두부 · 임산물	47,332,102원	7.1%	기타
합계	**668,674,439원**	**100.0%**	**178품목**

※ 신선식품(육류 · 채소 · 과일 · 알류) 621,342,337원 = 92.9%. 취급 178품목 전량 국내산(수입산 0%).

□ 6. 사용처 확충 — 가맹점 현황(가맹점목록)

총 가맹점	관내	관외·온라인 등	관내 비중	신규(6~7월)
420개소	411개소	9개소	97.9%	3개소

□ 7. 회원 현황 — 누계 대비 활성 구조(보유회원명단)

지원상태	가구	카드상태	매수
정상(활성)	1,078	정상	1,141
전출	87	서비스중지	84
자격중지	65	사용대기	13
가구주변경·성과분석	9	정지	1
총계	**1,239**	**카드 총계**	**1,239**

※ 현시점 활성 1,078가구 ↔ 연간 지원 누계 1,145가구. 차이는 지원 후 자격중지(65)·전출(87) 등이 활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실적 통계는 지원 사실을 누계로 집계함.

□ 8. 사각지대 관리 — 미신청 가구 발굴·독려(신청독려결과)

독려 대상	문자	전화	기타·병행
152가구	109건	24건	19건

※ 미신청 가구를 명단으로 만들어 문자·전화 등으로 개별 독려한 발굴·독려의 근거자료.

개인부문 3

市 추가예산 ZERO, 기업 대출이자 DOWN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 -

사례내용	추진배경	❍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증가** ❍ 기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효과 **확대 필요**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효과에 한계 -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추진내용	❍ **군산시 이차보전사업과 금융기관 금리우대 연계**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사업은 시의 융자추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3~6%)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IBK기업은행 자체 금리우대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 여부 검토 - 기존 **시 이차보전 지원에 금융기관 자체 금리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 추진방향 설정 ❍ **금융기관과 지원기준 조정을 통한 협약** - 군산시와 IBK기업은행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에 대한 협약기준을 조정하고, 군산시 이차보전사업과 기업은행 자체 금리감면을 연계한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마련**
	주요성과	❍ **기존 이차보전사업의 지원효과 확대** - 기존 이차보전사업만으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체감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은행 자체 금리우대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 도입** - 단순 예산지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재정투입 없이 지원효과 확대**

○ **기업이 체감하는 금융지원 효과 실현**

- 군산시 이차보전 지원과 기업은행 자체 금리우대를 연계하여 기업이 1~2%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지원 효과 실현
- **추가 신청절차 없이 협약대출만으로 금리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금융 접근성 향상

○ **추가 예산 투입 없는 금융비용 절감 성과 창출**

- 군산시 이차보전 지원과 IBK기업은행 자체 금리우대를 연계하여 기업의 실질 대출금리를 최대 1% 추가 인하
- 2026년 하반기 융자추천 규모(65억원)를 기준으로 IBK기업은행 협약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업 금융비용 연간 약 65백만원 절감 및 기업당 최대 연 3백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기대
- 추가 재정투입 없이 기업 금융비용 절감 효과 확대

<금리우대 프로그램 이용 시 금융비용 절감 예시>

※ 군산시 협약대출 추천기업, 대출금 300백만원

구분	기존 부담 (A)	군산시 이차보전 (B)	기업은행 추가 감면 (C)	기업 실부담 (D=A-B-C)
금리(이율)	5.3%(산출금리)	3.0%	**최대 1.0%**	**1.3%**
월평균 이자	1,325,000원	750,000원	**250,000원**	**325,000원**
연간 이자	15,900,000원	9,000,000원	**3,000,000원**	**3,900,000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중동 분쟁과 고금리·고환율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에 기여
-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관내 금융권의 금리우대 확대**

- IBK기업은행과의 협약 이후 타 금융기관에서도 자체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금융권의 금리우대 확대 분위기 조성
- 행정과 금융기관 협력이 금융권의 자발적인 금리우대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 마련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 **금융기관과 지원기준 차이에 따른 협약 범위 조정** - 군산시는 이차보전 추천기업 전체에 금리우대 적용을 추진하였으나, IBK기업은행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및 시설투자자금 중심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협약 범위 조정에 어려움 발생 ❍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식 마련 필요** - 군산시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형태와 금융기관의 지원기준이 달라 지역 실정에 맞는 협약내용 마련에 어려움 발생
업무담당자	극복 노력	❍ **행정과 금융기관 간 지원대상 조정 협의** - IBK기업은행과 실무협의를 실시하여 업력이 오래된 향토기업 비중이 높은 군산시 기업 특성을 설명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심으로 검토되던 지원대상을 군산시 이차보전 협약대출 추천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 ❍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협약내용 보완** - 지역 중소기업은 시설투자보다 운전자금 수요가 높은 점을 설명하고, 시설투자자금 중심으로 검토되던 지원범위를 운전자금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 보완 ❍ **협약 적용기준 조정을 통한 기업 불이익 최소화** - 협약 체결 이전 군산시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협약 시점 차이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적용기준 조정
	기타 에피소드	❍ **협약 이후 나타난 현장의 변화** - 협약 체결 이후 기업은행 협약대출을 진행 중이던 일부 기업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조건을 제시받아 대출은행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 발생 - 금융기관 확인 결과 자체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이 금융기관별 금리조건을 비교·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기업의 금융 선택 폭 확대

참고1 보도자료 - 2026. 4. 22.

전라매일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위한 협약 체결

최대 1% 금리 추가 감면

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군산시는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박수홍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10면 지

군산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대출 금리우대

IBK기업은행과 업무 협약

대출이자 지원·금리 감면

군산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시는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새만금일보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IBK기업은행, 금융부담 덜어준다

중소기업 이차보전 협약 체결

최대 1% 금리 추가 감면 혜택

군산시가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웅 기자

전주매일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IBK기업은행 금융비용 부담 완화 맞손

군산시는 지난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중앙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IBK기업은행 中企 금융부담 완화

이차보전협약대출 금리우대… 1~2%대 저금리

군산시는 20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 대출이자 3~6%를 지원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반기 자금이 조기 소진돼 3분기 자금은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군산=김기범기자

全北日報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7면 자치

군산시-IBK기업은행, 중기 금융부담 완화 협약

군산시와 IBK기업은행는 20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줄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충규 기자

전민일보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 IBK기업은행, 업무협약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맞손'

군산시가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종준 기자

전북제일신문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맞손'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협약 체결… 최대 1% 금리 추가 감면 등

군산시는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한우 기자

전북타임스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시민 위한 다각 지원 2(題)

군산-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

군산시는 20일 IBK기업은행과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 분쟁의 여파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사업과 IBK기업은행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업 금융부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기업의 대출이자(3~6%)를 지원해주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의 추가 금리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질적으로 1~2%대의 저금리 대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이차보전 사업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IBK기업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시 금리를 감면받는다. 단,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 재정지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금리우대를 결합한 협력모델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반기 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3분기 자금은 7월부터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은 상·하반기 자금 지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승철 기자

참고2 중소기금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6-1551호

2026년도 3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6. 15.

군 산 시 장

1. 사업목적 :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산업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3분기 지원규모 : 총 40억원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나.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자연재해로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증이 교부된 업체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교부 등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 ②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 신청 가능**
> **※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금 신청이 가능**

4. 지원조건

가. 자금용도 : 산업자금(운전자금, 설비자금)

나. 대출금리 : 각 금융기관별 기업자금대출금리(이차보전 3% ~ 6% 지원)

다. 융자한도 및 보전금리

구 분	융자추천한도액	보전 금리
일반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3억원	3%
여성,청년,향토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3.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유망 강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최대 5억원	6%
자연재해피해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라. 보전금리 우대조건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청년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군산시 기업지원과	
향토기업*	- 1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고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 (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 등기부등본	- (개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법인) 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접수 기간 내 15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군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표창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최근 3년 내 (2023~2025년) 수상 기업
유망*** 강소기업	유망 강소기업 인증서	군산시 신성장신업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3년 내 1회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 확인증 (매출액의 1/2 범위내 지원하되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군산시청 또는 읍면동	

마. 융자기간 : 2년 이내

바. 융자금의 상환 :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 상환

사. 융자신청 제한 조건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기 지원 중인 업체
-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융자기간 만료된 업체의 융자신청 ⇒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아. 융자 연장(1년) 신청 대상

- 2024년 융자 실행 기업체로 2026년에 만료되는 업체(1회 가능)
- **융자 연장(1년) 신청시 이차보전 금리 3%**

5. 지원결정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평가표에 의거 총 100점 중 50점 이상인 업체로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분기별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융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함.

나. 2025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최저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며 그 이하 금액은 전액 신청가능

다. 자연재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에서 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6.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7월 ~ 자금소진 시까지 **(매월 평일 1일 ~ 10일 신청)**

구분	융자금액	접수 기간	비 고
3분기	40억원	**(1차)** 7. 1.(수) ~ 7. 10.(금)	* 3분기 자금 소진 회차까지 접수
		(2차) 8. 3.(월) ~ 8. 10.(월)	** 분기별 배정 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융자 신청이 접수된 경우 평가표에 따른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융자 추천 대상을 선정
		(3차) 9. 1.(화) ~ 9. 10.(목)	

나. 접수방법

1) 신청서 교부

군산시 홈페이지(https://www.gunsan.go.kr) → 소통참여 → 고시공고 → 2026년 3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다운로드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3) 접 수 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붙임 1. 신청 구비서류 목록 참조]

라. 접수절차

은행 방문(대출상담확인서 작성) → 신청 접수 → 현장확인 → 심사평가 → 군산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해당업체 및 금융기관 결정내용 통보 → 융자실행

마. 선정결과통보 : 개별통보

7. 지원 제외대상

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업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 업체는 융자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을 중단 및 회수할 수 있음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주사무소와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

6)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자연재해 관련 지원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때

8. 대출 취급은행

7개 시중은행 **군산시 관내 영업점**

(신한, 전북, IBK기업, KEB하나, KB국민, 우리은행, NH농협)

> **【 군산시 – 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대출 금리우대 프로그램 협약체결 】**
> ▪ 협약기간 : 2026. 4. ~ 기업은행 자금 소진 시까지
> ▪ 협약내용 : 군산시 이차보전 지원(3~6%)과 **기업은행 자체 추가 감면 금리(최대 1%) 지원**

9. 대출 취급기한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융자 신청

- 단,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나 반기(6개월)를 넘을 수 없음
- 대출신청 기한(연장 포함)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지원 결정 실효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 내용 등은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자금이 은행을 통하여 저리 융자되므로 채권보전(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관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대출은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받을 수 없으며, 기타 대출문의 사항은 협약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이차보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군산시 기업지원과(☎454-4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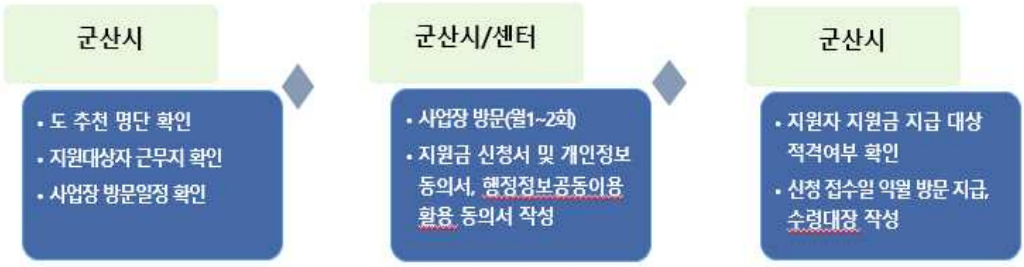
붙임 1.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융자금상환연기신청서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목록 각 1부.
3. 신청 구비서류 목록 1부.
4. 대출상담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5. 지원 상황 변경신청서 및 평가표 각 1부.

개인부문 4

비자 전환 지원금 신청,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 외국인 편의 높이고 정착 앞당긴다

- 외국인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지원사업 -

사례내용	추진배경	❍ 군산시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우수인력을 대상 비자승급지원금 지급 - 지급 대상자는 2025.1.1.이후로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하고 군산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임. ① 이 사업은 외국인이 제도를 알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신청주의로, 한국말이 서툴거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는 신청에 한계 체감. ② 평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행정기관 방문 어려움 및 한국어 미숙련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동료와 동행해야 하는 번거로움 존재 ③ 지원금 신청시, 민원실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와야 하는 불편함 존재
	추진내용	❍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도 외국인국제정책과, 3.27)에 군산시 제안 **<제안내용>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도 추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우수인재비자 대상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추진** - 전북도에서는 월 1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으로 숙련기능인력비자(E-7-4) 및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음. 지원금 지급 지자체는 해당 외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함 **<추진방안>** ①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추진)**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시 담당 직원이 월 1~2회 사업장 방문하여 본인 확인 및 접수 처리 (기업요청시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② **(사전동의 체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전동의 득하여 행정효율 제고 ③ **(행정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사전동의 득한 후 지원금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증빙서류 최소화**

		<추진체계>  **<추진내용>** - 전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설명회(3.27)에 군산시 비자승급지원금 사업 추진시 절차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안(군산시→전북도) - 도 추천 숙련기능인력 전환자 지원금 지급개선(안)검토보고(시→도) 송부('26.4.6) - 도 추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자 지원금 지급 개선(안)검토보고('26.4.14) - 외국인 근로자 현장 방문의 날 운영계획('26.4.21)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용 사무 신설 요청('26.4.24.) - 행정정보보유기관 동의 요청(행정안전부→법무부)('26.5.11) - 행정정보보유기관 동의 회신(법무부→행정안전부)('26.6.11) -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무 승인 得('25.6.12)(행정안전부→군산시) - 이용사무명으로"외국인등록사실증명"공동이용정보 이용 권한 得
	주요 성과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F-2R) 대상자 기업을 통해 전자팩스로 신청서 접수, 해당 지자체(김제, 부안)에 이송 및 지급 안내(총 3건) (26.6.30~7.3) - 지원대상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 ㈜수림산업 ('26.6.29) 등 3개 기업 - 보도자료(군산미래신문,'26.7.3) 군산시, 외국인 승급지원금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도입
업무담당자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 제도개선을 통해 나타날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담감과 교대근무 또는 현장근무가 대부분인 외국인근로자를 만나기 위한 기업과의 사전 일정조정 어려움에 대한 우려
	극복 노력	❍ 본 사업은 외국인의 언어장벽, 행정기관 방문, 서류부담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법무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의 편의를 개선한 사항임. - 기존의 방식처럼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기다리던 소극적 방법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내어 책임 행정을 실천함.

개인부문 5

문턱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고, 시민과 함께 만든 '전북 1등 공공도서관'

- 그림책으로 하나되는 금강도서관 운영 -

사례내용	추진 배경	❍ 금강도서관은 '22년 8월 개관 이후 군산시 동부권 신도심 지역의 가족 친화적 생활권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도서관의 대출·열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혁신 필요 · 도서관 건물 내부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 도시공원 등 주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독서 공간의 다변화 트렌드 적용 시급
	추진 내용	▸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 운영 ('25.9.27.)** - 시립도서관 및 수송공원 등 일원에서 금강도서관 중심으로 진행된 대규모 야외 독서축제를 성황리 개최하여 어린이 독서골든벨, 10개 독서문화 체험 부스, 야외 특별공연, 야외 도서관 등 입체적으로 연계한 독서문화 행사로 총 3,164명 참여 ➡ 도서관, 공원, 광장, 지역서점 등이 함께 연계한 대형 독서 문화행사 개최 ▸ **그림책 독서문화 행사'그림책 산책' 운영** ('25.8.19~8.31.) - 금강도서관 개관달(8월)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하계 특별 그림책 특화문화행사로 그림책 입체낭독극, 어린이 독후화 그리기 한마당, 부모 독서교육 특강, 시니어 책놀이 등 14일간 16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 총 3,003명의 시민 융합형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유아·어린이 중심의 도서관 독서문화행사를 그림책을 중심으로 학부모, 시니어 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 **그림책 작가 특화프로그램'짝수달, 그림책'운영** ('25.6월~10월,'26.2월~6월) - 짝수달마다 우리나라 신진·유명 그림책 작가를 직접 만나서 함께 그림책을 읽고 어린이부터 보호자까지 함께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으로 총6회, 262명 참여 ➡ 기존 작가와의 만남 일회성 행사를 짝수달로 정기 브랜드화 운영 ▸ **야외독서 프로그램 '노을빛 북캠핑'운영** ('26.5.12.~6.25.) - 도서관 건물을 벗어나 인근 디오션 철길공원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감성 독서 캠핑 프로그램 운영, 총 116가족, 438명 참여 ➡ 실내 도서관 도서열람 중심의 정적인 서비스에서, **자연 속 감성형 야외 도서관 운영**으로 독서공간 확장을 통해 참여자 긍정적 호응 얻음 (만족도 98%)

▸ 기타 도서관 주간(4월), 독서의 달(9월), 도서관 오케스트라 행사(6월), 문화가 있는 날, 인문 특강 등 테마별 독서 행사 운영

▸ **다양한 기관 협력 및 정보소외계층이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 국립생태원(생태정보도서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중학교 특수반 청소년 등이 도서관 문화체험을 통해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

▸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

- 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서관 무인기기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춘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 설치 및 신규 장비 도입(총7대), 도서관내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도서관 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주요 성과

▸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전라북도 종합 1위 달성**

- 그림책 특화 운영,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행사, 지역기관 협력, 정보소외계층 포용,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종합적으로 인정 받음 (도내 44개 참여 기관 중 최고점)

▸ 책책북북 페스티벌 및 그림책 산책, 노을빛 북캠핑 등의 성공적 운영으로 **연간 독서 저변 획기적 확대**

- 독서문화행사가 단발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서관 방문과 도서 이용 활성화로 이어짐

(연평균 방문자수 7.3%, 대출자수 6.4%, 대출권수 2.3%씩 지속적 증가 추세)

연 도	방문자수	대출자수	대출권수	비 고
2023년	254,501명	69,009명	182,675권	
2024년	273,902명	74,648명	184,520권	
2025년	291,441명	77,781명	191,112권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및 정보소외계층도 함께 누리는 도서관 문화 정착**

- 외부기관의 전문성과 도서관의 공간, 장서 등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서관 문화 조성

▸ 이용자 중심의 시설개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친환경·안전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공도서관 구현 노력**

▸ **이용자 맞춤형 독서정보 서비스 제공**

- 일상속에서 시민들이 그림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원화 아트프린팅 전시, 사서 북큐레이션, 멀티미디어 독서카드 콘텐츠를 활용한 북트레일러

상시 운영 등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정보 서비스** 도입

▸ '25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89.7%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을 수집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전반적 이용 만족도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	324	54.2
만족	212	35.5
보통	45	7.5
불만족	15	2.5
매우 불만족	2	0.3
계	598	100

프로그램.행사 만족도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	217	36.3
만족	213	35.6
보통	153	25.6
불만족	13	2.2
매우 불만족	2	0.3
계	598	100

맞춤형 정보서비스 만족도

구분	인원(명)	비율(%)
매우 만족	225	37.6
만족	232	38.8
보통	134	22.4
불만족	5	0.9
매우 불만족	2	0.3
계	598	100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그림책에 대한 고정관념, 인식 극복**

- 그림책은 주로 영유아나 어린이만을 위한 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림책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 수 있는 예술적·문학적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프로그램에 구현하기 위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시니어, 가족 단위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하였으며, 단순 책읽기나 만들기 체험을 넘어 북토크, 낭독극, 동화요리, 시니어 책놀이, 야외 독서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그림책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 하는데 노력이 필요했음

▸ **제한된 예산과 인력 속 대규모 독서문화 행사 운영**

- 금강도서관은 연중 특별 독서문화행사, 특화 프로그램등을 동시에 운영 해야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과 독서행사 담당 인력(사서1명)으로 작가섭외, 홍보, 참여자 모집, 물품 준비 등 기획·운영을 진행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노을빛 북캠핑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도서관 전 직원이 텐트(10동)을 매일 피칭하고, 수거·정리, 공원 제초작업 등 사전준비와 현장관리에 도서관 직원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 **야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예측 불확실성**

-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 당일 오전 우천으로 인하여 야외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독서 골든벨 행사를 시립도서관 실내로 긴급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노을빛 북캠핑의 경우 운영 기간 중 우천으로 인하여 5월 6회, 6월 2회가 운영취소 되어 참여자 취소 안내, 대체 운영 검토, 현장 안전 관리등 담당자의 세밀한 대응 필요

극복 노력

▸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을'어린이 행사 중심'에서 '전세대 참여형 독서 행사'로 확대**

-'25년에 운영한「그림책 산책(8월)」과「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은 단순 어린이 체험에서 학부모, 성인, 시니어, 가족단위까지 세대를 확장하여 운영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독서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음

		▸ **단순 행사를 넘어선 도서관 본연기능(독서)와의 연계성 고도화** - 책책북북 페스티벌, 독서의 달 등 대형 행사 추진시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도서관 내 도서를 활용하고 도서 대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블라인드북, 두배로 대출 주간, 연체자 해제 프로젝트 등 연계한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휴면 회원들을 구제하고 유입시켜 행사기간 도서대출 실적 확대되는 효과 얻음 ▸ **'주간·실내 문화프로그램'의 한계를 넘어'주말, 야간 시간 문화프로그램' 운영** - 기존 도서관 프로그램은 주로 주간시간대와 실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맞벌이 가정이나 성인, 평일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에 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들을 시민 참여가 가장 높은 주말, 평일 저녁시간대로 옮겨 운영하여 퇴근, 하교 이후에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 참여도 높이고자 노력
	기타 에피소드	• 「노을빛 북캠핑」운영을 위해 텐트 피칭 및 독서 물품 세팅 등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서관과 공원 유동 인구의 호기심과 자발적 문의가 급증하고, 6월 참여자 모집이 10분도 안되서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새로운 독서프로그램 관심도와 높은 기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음 • 65세이상 중장년 층을 타깃으로 진행한 시니어 책놀이 프로그램의 경우 어르신들이 그림책을 통해 본인 삶의 궤적을 반추하고 즐겁게 독후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그림책이 모든 세대의 삶을 치유하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부합하는 매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참고1 사업 결과보고서

국립생태원과 함께하는 『자연을 품은 책장』

2025년 금강도서관 기관연계 북큐레이션 운영 결과보고

국립생태원의 기관연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환경 도서를 제공하고 지역 내 생태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

I 운 영 결 과

○ 운영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31.(토)
○ 전시장소 : 금강도서관 아동자료실 1층
○ 참여인원 : 관내 이용자 1,040명(12월 130명, 1월 910명)
○ 운영내용 : 국립생태원(생태정보도서관)의 도서를 활용한 특별 북큐레이션 운영 및 사서추천도서목록, 멸종위기동물엽서 등 제공
·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우화』 등 100권 북큐레이션
· 추천생태도서 100선 목록집 비치 및 제공
· 추멸종위기동물 엽서(3종) 1,000매 제공

II 운 영 모 습

2025년 금강도서관 기관연계 북큐레이션 운영 결과보고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경계없는 도서관' 지역연계 프로그램

2025년 금강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I 운 영 개 요

○ 견학일시 : 2025. 11. 19.(수), 12. 4.(목) [2일간, 총3회]
○ 견학장소 : 금강도서관 자료실 및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28명(군산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23명, 산북중학교 특수반 5명)
○ 견학내용: 도서관 이용자 교육, 회원증 만들기 및 도서 대출, 그림책 읽고 독후활동 등 체험

II 운 영 모 습

도서관 이용 교육 | 대출증 발급신청서 작성 | 도서대출 및 반납

III 운 영 성 과

○ 문화 취약 계층 대상으로 도서관이 누구나 누릴수 있는 문화공간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
○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도서대출반납 등 견학 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춤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됨

2026년 금강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발달장애인)

참고2 언론보도

군산시 도서관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

정준모 기자 | 승인 2026.07.03 14:56 | 댓글 0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4개 참여 도서관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한다.

군산시의 탁월한 도서관 관리와 운영 역량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금강도서관은 지난 2022년 총 사업비 101억5천여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3천753㎡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 개관됐다.

특히, 환경 기술설계가 적용된 녹색 건축 인증 도서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조성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일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4개 참여 도서관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신도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가족친화적인 '체류형 공공도서관'과 '그림책'을 특화 주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세대통합형 독서문화 지향으로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장벽을 낮추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에 힘쓴 공적이 인정됐다.

군산 금강도서관, 전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종합 1위 영예

김종준 기자 | 승인 2026.07.05 12:37 | 댓글 0

군산시립도서관도 우수도서관 선정 쾌거

군산 금강도서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도내 44개 참여 도서관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도서관 운영 전반을 정량·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예산·장서·사서 등 투입 부문, 자료 대출·독서 프로그램·정보기술 서비스 등 산출 부문, 도서관 간 협력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이다.

지난 2022년 8월 개관한 금강도서관은 신도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가족친화적인 체류형 공공도서관을 지향해 왔다.

특히, 그림책을 특화 주제로 삼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독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강도서관은 한 해 동안 '짝수달 그림책', '그림책 산책'을 비롯해 야외 독서문화축제인 '책책북북 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도서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누구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일보 2025년 8월 8일 금요일 015면 오피니언

군산시 금강도서관, '그림책 산책' 프로그램 진행

군산시 금강도서관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그림책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다양한 그림책 체험과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독서와 문화 향유를 독려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그림책 재해석 그림그리기, 작가와의 만남, 독서교육 특강, 풍선소, 그림책 낭독극 등이 마련돼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포토존, 북트레일러 상영, 그림책 전시 등 자율 체험도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금강도서관이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으며, 참여 신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군산시립도서관이나 금강도서관(063-454-5672)으로 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군산시 금강도서관 '그림책 산책' 포스터

전북중앙 · 2025.08.07.

군산시 금강도서관, 독서 문화행사 운영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행사'그림책 산책'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금강도서관 특화 주제인 '그림책'을 매개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독서문...

금강도서관, 8월'그림책 산책'독서 문화행사 운영 신아일보 · 2025.08.07.

신아일보 · 2025.06.16.

군산 금강도서관, 6월 시민들 위한 문화행사 풍성

전북 군산시 금강도서관이 6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웹툰 스토리·그림책 작가초청 강연부터 어린이 대상 독서연계 체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먼...

군산시 금강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풍성 전북중앙 · 2025.06.16.

전라매일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 개최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책 읽고 체험과 문화 공연 즐겨

군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 오는 27일 시립도서관 앞 수송근린공원과 맘껏광장 일원에서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도심 속 푸른 쉼터, 군산'을 주제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전에는 개회식과 어린이 독서골든벨이 페스티벌의 막을 연다. 사전 접수를 진행했던 어린이 독서골든벨은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도 못 돼 80명의 참여 인원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후에는 야외도서관·밀짚모자 및 빔봉 만들기 등 어린이 독서문화 체험부스, 원화 전시·그림책 북큐레이션, 독서진단, 해봉사진관,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초등 3~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진행했던 독서골든벨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미술 버스킹과 버블쇼선 매직쇼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산시립도서관 본관과 금강도서관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배수현 기자

진북연합신문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013면 스포츠·문화

군산도서관 '책책북북 페스티벌' 개최

군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 오는 27일 시립도서관 앞 수송근린공원과 맘껏광장 일원에서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도심 속 푸른 쉼터, 군산'을 주제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전에는 개회식과 어린이 독서골든벨이 페스티벌의 막을 연다. 사전 접수를 진행했던 어린이 독서골든벨은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도 못 돼 80명의 참여 인원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후에는 야외도서관·밀짚모자 및 빔봉 만들기 등 어린이 독서문화 체험부스, 원화 전시·그림책 북큐레이션, 독서진단, 해봉사진관,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초등 3~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 모집을 진행했던 독서골든벨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미술 버스킹과 버블쇼선 매직쇼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군산시립도서관 본관과 금강도서관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누리집(http://lib.gu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송기문 기자jbsk-m@naver.com

- 19 -

전북중앙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 27일 책책북북 페스티벌 개최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이 오는 27일 시립도서관 인근 수송근린공원과 맘껏광장에서 군산시립도서관과 금강도서관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도심 속 푸른 쉼터, 군산'을 주제로, 책과 자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가족 참여형 독서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는 오전 개회식과 함께 어린이 독서골든벨로 막을 올린다. 독서골든벨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 접수 하루 만에 80명 정원이 마감되고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어 오후에는 △야외도서관 △밀짚모자·빔봉 만들기 △원화 전시 및 그림책 북큐레이션 △독서진단 △책북사진관 △페이스페인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군산=김기범기자

개인부문 6

안부를 잇고, 희망을 더하다

- 고독사 예방 춘하추동 보살핌 사업 -

사례내용

추진 배경

○ 사회적 고립 및 생활 취약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였음.

추진 내용

○ **사 업 명 : 고독사 예방『춘하추동 보살핌 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연 4회)

구분	봄(1차)	여름(2차)	가을(3차)	겨울(4차)	비고
기 간	3월~4월	6월~7월	9월~10월	11월~12월	4회 지원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및 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40명

○ **대상자 선정방법**

- 2026 고독사 위험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 선정(40가구)

※ 흥남동-2040(2026. 2. 24.)호, 2026 고독사 위험군 조사 결과 보고에 따름

○ **지원내용** : 비타민·영양제 및 여름·겨울 용품

○ **지원방법** : **가정방문을 통한 물품 전달, 복지상담 및 모니터링**

○ **소요예산 :** 금13,200,000원(금일천삼백이십만원)

(단위:천원)

구분	봄 (3월~4월)	여름 (6월~7월)	가을 (9월~10월)	겨울 (11월~12월)	계
소 요 예 산	2,000	3,200	2,000	6,000	13,200
지 원 내 용	종합 비타민	여름 쿨매트 및 이불	오메가3 영양제	겨울이불	-
산 출 내 역	40명*50천원	40명*80천원	40명*50천원	40명*150천원	-

○ **재 원 :** 시민참여예산(흥남동)

주요 성과

○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영양결핍 해소 및 신체적·정신건강 증진

○ 정기적인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

<table>
<tr>
<td rowspan="2">업무담당자</td>
<td>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td>
<td>▢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한정된 예산과 시간에서 실질적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대상자 선정이 우선하는데, 확정된 조사 대상 및 정형화된 조사 방법이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예산 확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동예산 확정 사례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 대상자 라포(공감대) 형성
장기간 혼자 생활하며 사회활동이 적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특성상, 라포(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음</td>
</tr>
<tr>
<td>극복 노력</td>
<td>▢ <u>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총 조사 가구 1,007명, 선정 40명)</u>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3단계 걸쳐 사업자 선정
[1단계] 2025년 1월 ~ 2월, 흥남동 단독가구 589명(국민기초수급자 227, 차상위 36, 일반 326) 대상 사회적관계망, 서비스 연계 정도 및 고독사 위험도를 판단하여 사회적고립 위험가구 60명을 선정하였음.
[2단계] 2025년 3월 ~ 4월, 본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60명과 행복e음 관리 77가구를 더 조사하여 다시 위험가구 42명을 선정하였음.
[3단계] 2026년 2월에도 2025년 저소득층 조사 누락자, 신규자, 전입자 포함하여 독거 234가구, 2025년 선정가구 42가구, 2026년 행복e음 위기통합발굴관리 대상 5가구를 조사하여 현재 사업 대상 40명을 선정하였음.
▢ <u>예산 확보(금13,200천원)</u>
사업 진행 예산 확보를 위해 흥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정권 위원장에게 사업을 필요성을 어필하였음. 이에 논의 후 협의를 이끌어 내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본 사업을 제안하였음.
이후 흥남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논의를 거쳐 2026년 흥남동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u>대상자 라포(공감대) 형성 및 모니터링(가정방문 원칙)</u>
대상자와 라포형성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100%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음</td>
</tr>
</table>

	기타 에피소드	**(에피소드) 안부를 잇고, 희망을 더하다 - 사례중심 -** - 2026. 4. 8.(수) 흥남동행정복지센터로 도움을 달라고 전화 한 통이 옴. 상담 중 사회복지통합업무시스템(행복e음)을 조회해 본 결과, **2017년부터 10여 차례, 주거취약, 단전, 임차료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조회된 대상이었으며 계속 지원을 거절한 대상**이었음. 세상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느낌이 들어 집에 계시라고 하고 바로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방문 결과, 동에서 사람이 온다고 집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지만 바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어지러워졌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음. 가구나 짐들은 많지 않았음. 몸짓 및 말투는 불안해 보이고, 수염이 덥수룩하였음. 폭력성은 없어 보이나 **우울감 심해 보였음**. - 상담 결과, 실제로 **2024년, 2025년 즈음, 자살을 시도** 하였고, **자녀와는 교류 없이 지내오고 있으며**, **부인과는**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2022년 7월 군산에 온 이후,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고 있었음. - 주거지는 **월세 체납** 상태, **전기세** 또한 **체납**으로 2025년 12월 3일부터 전기 사용이 제한되었고 **가스료도 체납**된 상황이었음. -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아 치아도 약해져 있었음** -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자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거부했지만, 현재는 혼자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움 요청하였다고 함.** - 상담 결과, **고독사위험군으로 판정하고 관리**를 시작함 **** 조치사항** -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하고「**고독사 예방 춘하추동 보살핌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봄**에 **비타민**(4개월 분), **여름**에 **냉감이불 및 패드**를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지를 계속 보내 줌** - 좀 더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는, **우체국「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월 3회 안부를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후원품 쌀 10kg 1포, 식품꾸러미 1박스를 지원**하였고 **긴급복지**를 연계하여 **생계비를 6개월 지원(월 783천원)**하고 있음

		-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여 **3개월 교육 받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음. 현재는 실기 준비 중**에 있으며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고 있음**. ▶ 위와 같은 조치로 상기인은 **영양결핍을 일부 해소**하고 **신체적·정신건강을 증진**하였으며 **정기적인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하였음.

참고1 활동 사진

개인부문 7

베어낸 피해목은 자원으로,
사라진 소나무 숲은 다시 숲으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사례내용	추진 배경	❍ 군산시는 2015년 4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반출금지구역이 37,658ha로 확대되어 시 전체 면적의 9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복·집단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지속 ❍ **기존 감염목·고사목 단목 제거 방식**은 **반복 발생지역의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원목과 가지의 파쇄·운반·처리**에 **많은 예산과 장비 소요** ❍ 전국적으로 방제작업이 집중되는 3~5월에는 파쇄장비 확보가 어렵고, 소규모 분할필지와 부재 산주 등으로 산주 동의가 지연되면서 적기 방제에 어려움 발생 ❍ 반복·집단 발생지역은 **일정 구역의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대규모 수종전환 방제로 전환**하고, **피해목은** 현장 파쇄·폐기 대신 **원목과 가지를 매각·자원화**하는 방식으로 방제체계 개선
	추진 내용	❍ **현장 여건에 맞춘 수종전환 방제방식 이원화** - 산주 동의 확보지역은 입목매매계약과 벌채허가를 활용한 비예산 수종전환 방제 추진 - 산주 동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방제조치명령과 사업공고를 거쳐 도급사업으로 시행하여 감염원 방치 최소화. - 2026년 상반기 도급사업과 벌채허가 방식을 병행하여 262ha, 103,441본에 대한 대규모 수종전환 방제 추진 ❍ **방제기간 이전 사전 행정절차 선제 이행** - 방제 집중시기에 설계·허가·장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던 기존 업무방식 개선 - 전년도 하반기부터 방제조치명령, 사업공고, 벌채허가 협의와 실시설계를 사전에 추진하여 방제 가능 기간 내 신속한 현장 착수 - 원목·바이오매스 활용업체와 처리방안을 사전 협의하여 방제목의 장기간 현장 적치 방지 ❍ **피해목을 폐기물에서 활용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전환** - 제거된 원목은 합판·MDF 등의 원료로 매각하고, 과거 현장에서 파쇄·산포하던 가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

		- 원목과 가지를 현장에서 파쇄하지 않고 자원화하여 파쇄장비 부족 해소 및 파쇄·운반 비용 절감 - 피해목을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방제 산물을 수집·매각하는 자원순환형 방제체계 구축 ❍ **중점관리지역과 경계지역의 선제적 방제 강화** -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군봉공원, 청암산, 오성산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단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집중 -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수종전환 방제 473ha, 214,169본 추진, 단목 제거 19,452본 및 예방나무주사 40,073본 실시
	주요 성과	❍ 군산시 전체 소나무림 2,744ha 중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1,232ha, 약 44.9%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추진 ❍ 2026년 상반기 소구역 모두베기 16.6ha, 단목 제거 5,403본, 예방나무주사 6,650본을 병행하여 피해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동시 방제 ❍ **방제목 매각·자원화를 통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62억 원의 방제예산 절감** ❍ 산주 동의 여부에 따라 벌채허가와 도급사업을 병행하여 소유권 문제로 **방제가 지연되던 기존 업무의 한계 해소** ❍ 방제목 처리방식을 현장 파쇄·폐기에서 원목과 가지의 매각·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산림자원 순환형 방제체계 구축 ❍ 방제기간 전에 인허가, 실시설계, 산물 처리업체 협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제한된 **방제 가능 기간의 효율적 활용** ❍ 수종전환 방제지 현장점검과 작업로 복구를 통한 **토사유출 토사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규모 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부재 산주와 상속 미정리 토지가 많아 **산림소유자와 주소지 확인 및 산주 동의 확보에 장기간 소요** ❍ 일부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제구역 내 감염원이 잔존하여 사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방제조치명령과 대집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방식 결정에 난항 ❍ 수종전환 방제는 단기간에 많은 나무를 제거하는 특성으로 인해 산림훼손이나 무분별한 벌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벌채 후 경관 훼손과 토사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 전국 방제작업이 3~5월에 집중되어 파쇄장비와 운반차량 확보가

		어렵고, 장비 확보 지연 시 매개충 우화기 이전 방제목 처리에 차질 발생 ❍ 다른 시·군에서 발생한 방제목이 군산시 관내로 이동할 경우 재선충병 추가 확산 우려로 이동시기와 처리과정에 대한 별도 관리 필요
	극복 노력	❍ 현장조사와 산주 확인을 통해 **산주 동의가 가능한 지역과 동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 ❍ **동의 확보지역**은 입목매매계약과 벌채허가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동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방제조치명령과 사업공고 후 도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원화 방식 적용 ❍ 방제기간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전년도 하반기부터** 대상지 조사, 방제조치명령, 사업공고, 벌채허가 협의 및 실시설계 등 **선제적 이행** ❍ 파쇄장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목 수요처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업체를 발굴하고 방제목 처리방안에 대한 사전협의 추진 ❍ 설계 단계부터 파쇄 대상과 매각·자원화 대상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파쇄비를 제외**하고, **원목과 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물 처리방식 개선** ❍ 수종전환 대상지의 경사도, 주택·도로 인접 여부 및 토사유출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림사업과 목책·사방시설 등 **산사태 예방사업**의 후속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협의 ❍ 관외 방제목 이동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개충 우화기를 고려한 **방제목 이동 제한 기준의 지침 반영을 관계기관에 건의** ❍ 월명공원의 피해 발생, 수종전환 직후 및 복원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자료로 활용하여 수종전환 필요성과 장기적 산림복원 효과 설명

	기타 에피소드	❍ 원목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자원으로 활용하여 파쇄장비 부족과 방제 산물 적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방제비용 절감 ❍ 월명공원은 2016년 대규모 수종전환 이후 조림·도시숲·기업체 참여숲 조성을 통해 산림을 회복하고, **산림청의 '2024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대표적 수종전환 방제·산림복원 성공사례** ❍ 재선충병 방제를 단순한 고사목 제거에서 피해목 자원화, 새로운 숲 조성 및 산사태 등 후속 재해예방까지 연계한 장기적 산림관리 업무로 확대 추진

참고1 지역방제 민관협력 회의 개최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을 위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 개최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을 위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 개최
- 산림청,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로 피해목 활용방안 논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활용 방안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방제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군산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군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군산시는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 접근성이 용이해 재선충병의 외부유입 및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지역으로,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나무주사와 수종전환 방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지역 언론,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맞춤형 방제전략과 함께 피해목을 군산시에 위치한 목재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피해목의 활용방안으로 피해목이 부후(腐朽)되기 전 최대한 수집해 목재의 상태에 따라 용재, 합판, 바이오매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개충의 성충 직전 단계인 우화기를 제외한 기간에 대형그물망 등의 방제법을 활용해 피해목을 이동시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림훼손과 비용만 발생되는 마이너스 사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된 피해목의 활용방안이 현실화돼 소나무재선충방제가 플러스방제가 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2 언론보도(월명공원 수종전환 성공사례)

매일경제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C03면 기획

군산 월명공원 '도심형 녹지 허브'로 재도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이후 대대적인 산림 구조 전환

전북 군산 월명공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대대적인 산림 구조 전환을 통해 '도심형 녹지 허브'로 재도약했다. 감염목만 단독으로 제거하는 단목방제에서 벗어나 숲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전격 도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례로 꼽힌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개월간 피해목 7만449본을 제거하고 예방주사 8753본을 실시했으며 벌채 목재 일부는 7억1200만원에 매각해 사업비 일부를 보전했다.

당시 월명공원은 재선충병 집단 감염이 확인돼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과 경관 가치가 크게 저하되면서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감염목만 단독으로 제거하는 단목방제를 넘어 숲의 구조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전격 결정했다.

소나무로 편중된 인공림을 활엽수 중심 혼효림으로 변환해 산림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림 환경을 조성했다.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나무림을 제거한 후에는 벚나무, 편백, 단풍나무, 참나무 등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합한 다층·다종의 숲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

총 257ha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1ha의 공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그 결과 키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지는 숲으로 탈바꿈했다.

이에 따라 월명공원 주요 구역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빠른 속도로 녹음이 회복되고 재선충병 재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자체별 산림 여건에 맞는 수종 전환 방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한필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이제는 선제적 대응과 수종전환으로"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수종전환 방제는 피해목을 제거한 뒤 다른 수종으로 조림하거나 천연갱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형 산림 전환에 효과적이다. 전북 군산시는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생태복원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월명공원은 2016년 전체 면적 231ha 중 127ha가 피해를 입었으나, 수종전환 방제를 통해 현재는 생태계가 회복된 상태다. 당시 방제 실무를 담당했던 노남섭 군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당시 단목 방제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종전환 방제를 택했다"며 "2017년 4월까지 방제를 완료하고 조림을 시행해 9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복원된 숲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방제 과정에서의 피해목 자원화 사례도 눈에 띈다. 노 과장은 "피해목을 파쇄하는 대신 업체와 협약을 맺어 MDF 원료로 매각해 자원화를 추진한 결과, 약 7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올해부터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3 언론보도(원목 · 부산물 자원화로 예산절감)

全北日報

군산시 재선충 모두 베기 방제 '전국 주목'

윤정근 | 입력 2026-05-21 14:54 | 수정 2026-05-21 14:54

> 단목 방제 한계 넘어 수종 전환 도입···재발 차단·산림복원 효과 원목·부산물 자원화로 연간 50억 절감···지자체 벤치마킹 이어져

군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가 추진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산림방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단순 고사목 제거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전체를 정리하는 '모두베기' 방식의 수종전환 방제를 도입하면서 방제효과는 물론 예산절감과 산림복원이라는 성과까지 동시에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될 경우 나무가 빠르게 고사하는 대표적인 산림 병해충으로,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10년간 약 68만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되거나 고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마다 막대한 방제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감염된 나무만 골라 제거하는 '단목방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단목 방제는 산림밀도가 그대로 유지돼 조림작업이 쉽지 않고, 감염목 주변에 남아있는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방제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상존해 행정력과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구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지역 소나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수종전환 방제방식을 본격 도입했다.

감염목뿐 아니라 주변 소나무까지 함께 제거한 뒤 활엽수,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재선충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자원 활용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모두베기 과정에서 나온 원목은 MDF·바이오매스·우드칩 업체 등에 톤당 7만~8만원 수준에 판매해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처리비용을 들여 산림에 흩뿌리던 나뭇가지 역시 파쇄과정을 거쳐 톤당 5만~6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단순 폐기물이던 부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성과 친환경 효과까지 확보한 셈이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약 5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단목 방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담과 재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종전환 방제는 재선충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산림생태계 회복과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약 300헥타르 규모의 모두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부문 8

푸른씨앗 심고! 희망 미래 열고!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

사례내용	추진 배경	❍ 기존 퇴직금 방식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함 ❍ 특히, 사업장 경영이 곤란할 때는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 **※ 우리 시 임금체불 현황 '23년 60.9억원 →'24년 86.3억원 → '25년 91억원** ❍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입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우리 시는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 연금 가입 확대**와 근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 내용	①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신규 발굴** -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기획, 정부의 퇴직연금 확대정책에 대응하고자 함 ② **근로복지공단「푸른씨앗」연계 지원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분석하여 공단 지원과 연계한 군산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③ **사업 운영계획 및 지원기준 수립**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예산 규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유사사업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table>
<tr><td></td><td></td><td>

❍ 추진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 협업 요청	⇨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1차)	⇨	군산시 -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	군산시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25.2.10.		25.9.22.		26.3.17.		26.4.~

❍ 사업 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 대상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 사업 내용 : 공단 근로자 지원금의 10% 추가 지원

④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추진**
-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자 언론 인터뷰, 홍보 전단지 등을 제작하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및 참여를 유도함

</td></tr>
<tr><td></td><td>주요 성과</td><td>

❍ **군산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현황**
-'25년 12월 기준 190개소 813명 가입
-'26년 5월 기준 227개소 929명 가입 **(전년대비 37개소, 116명 증가)**
❍ **군산시 –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26. 3. 17.)**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부(1,000부)

</td></tr>
<tr><td>업무담당자</td><td>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td><td>

❍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연계한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운영사례 및 상위 지침이 부재하여 사업 운영기준, 지원절차 및 예산 집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근로복지공단과 지자체 간 역할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만큼 지원대상 확인, 지원금 지급체계, 사후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제도 검토가 필요

</td></tr>
</table>

	극복 노력	❍ 근로복지공단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급방식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기준과 근거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국가는 가입 촉진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기준 및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함 ❍ 전국 최초 사업인 만큼 예상되는 행정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집행, 사후관리 및 중복지원 방안 등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함
	기타 에피소드	❍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도 지자체에서 가입 근로자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운영방식과 역할을 함께 검토해야 했음.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지급절차, 개인정보 제공 범위 등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전국 최초의 협업모델을 마련**함 ❍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절차와 운영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 과정, 지원기준 및 예산 편성 방식 등을 공유하여 군산시의 기업 지원 정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됨

참고1 언론보도

전북연합신문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7면 지역

퇴직연금으로 안정적 노후 돕는다

군산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 시행
공단 적립금액 10% 추가 지원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을 확대해 준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선웅 기자
jbskm@naver.com

전북제일신문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7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군산시, 전국 최초 오는 3월 이후 시행키로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확대해 준다. 가령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 원을 납부할 경우 공단에서 28만 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 원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며, 군산시가 28만8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41)나 시청 기업지원과(063-454-2772)로 하면 된다.

/군산=이찬두 기자

전민일보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전국 최초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 시행

30인 이하 기업 월급 281만원 미만 근로자 혜택

군산시가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41)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063-454-2772)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도민일보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14면 지역

군산시, 중소기업 퇴직 연금 지원 시동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기존 부담금 10% 계좌 지원… 市는 1% 추가 적립

전국 최초로 군산시가 내달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 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 근로자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해당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여기에 군산시가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해 준다.

가령 기준에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내면 공단은 28만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하고 28만원을 근무자 계좌에 적립하는 데 군산시가 28만8천원을 추가로 적립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이다.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새만금일보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30인 이하 기업(소상공인 포함)
월급 281만원 미만 근로자 혜택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기혁 기자

전라매일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전국 최초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시행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3월 시행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으로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수현 기자

전북투데이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6면 지역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전국 최초 3월 이후 시행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기금사업(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수익률이 약 27%로, 정부 목표(연 4.4%)와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6.82%)을 크게 상회한 퇴직연금이다.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 16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며, "군산시가 추가 지원에 나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주매일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007면 지역

군산시,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기업 근로자 적립분 추가 지원
30인 이하 기업 · 소상공인 월급 281만원 미만 근로자 혜택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오는 3월 이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돼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더해, 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의 실질 적립액은 총 30만8천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부담 없이 더 많은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제2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063-450-0141)와 군산시청 기업지원과(☎063-454-2772)로 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참고2 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참고3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개인부문 9

퇴원에서 일상으로, 의료와 돌봄을 잇다

- 간호직 전문성을 활용한 군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

<table>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추진배경</td><td>■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돌봄 수요 증가
- 군산시 인구 25.5만 명 중 노인인구 약 6만 5천 명
■ 서비스 분절적 제공으로 퇴원 후 돌봄 공백 및 장기입원 증가
-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하는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신청도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하여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부담,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짐
⇒ 퇴원환자 원스톱 연계체계 필요
■ 군산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 시행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작했으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률 저조
⇒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필요</td></tr>
<tr><td>추진내용</td><td>❑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6. 1 ~ 12. (25년 시범사업 시작, 통합돌봄 본사업 추진 '26.3.27~)
○ 사업대상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 사업목적 : 병원,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 주요내용 : 보건의료, 건강관리, 방문요양, 일상생활 등 지원
○ 업무절차 : 신청·발굴→조사→지원계획→회의(결정)→서비스연계→모니터링
○ 관련 주요사업 :
- (지특)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의료기관에서 통합돌봄계로 직접 연계
- (지특)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 재택의료센터 3개소 등을 이용하는 방문진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재가급여 장기요양 대상장에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제공 (군산시 3개소 참여)
- 노인맞춤돌봄 퇴원단기집중서비스 : 올해 신규 국가 사업,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강화된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td></tr>
</table>

	❑ **퇴원환자의 건강회복부터 일상생활 복귀까지 끊김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1 (연계체계 구축) 의료기관-행정 간 퇴원환자 원스톱 연계체계 구축
	○ 의료기관 20개소를 직접 방문·설득하여 협약 체결 ○ 보건의료단체에게 의료관련 사업 관련 자문 요청 ○ **병원에서 통합돌봄계로 직접 의뢰하는 퇴원환자 연계체계 마련** ○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2 (현장조사) 간호직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 중심 통합사례관리
	○ **의료기관 의뢰 즉시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및 돌봄욕구 종합조사 ○ 건강상태와 기능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지원계획 수립**
	3 (통합지원회의) 다학제 통합지원회의 운영
	○ **의료·보건·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 대상자별 통합지원계획 검토 및 지원사항 결정 ○ 서비스 제공 후 의료기관에 연계 결과 회신하여 퇴원 후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
	4 (맞춤형 서비스) 퇴원환자 회복 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 지역특화서비스 11종을 포함한 62종의 보건의료·건강관리·요양·생활지원·주거지원 서비스를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통합 연계
	5 (사후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재조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주요 성과	❑ **의료기관-행정 간 퇴원환자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달체계 정착에 기여**
	❑ 계량성과

■ **의료기관 20개소 협약**
-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

■ **보건의료단체 5개소 협약**
-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 **병원-행정 퇴원환자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연계 대상자 : 57명** (입원 1명, 사망 1명)
- **재입원률 : 1.7%**

⇒ **지역사회 정착률 : 98.3%**

■ **2026년 통합돌봄 사업 추진**
- **통합지원회의 14회 운영**
- **대상자 229명 선정**
- **서비스 연계 1,263건**

⇒ **통합돌봄 사례관리 정착**

■ **신규 국가사업 조기 정착**
- **퇴원단기집중서비스 연계 전국 250명 중 군산 25명 전국 대비 10%**

⇒ **신규사업 조기 정착 및 전국 우수 운영 사례**

■ **방문진료 이용 활성화**
-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

⇒ **A의원 : 9→17명, 88% 증가**
B의원 : 40→69명, 72% 증가
C의원 : 10→15명, 50% 증가

⇒ **경제적 부담 완화로 방문진료 이용 활성화**

		❑ 정성성과 ○ 군산시 통합돌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유하며 정책 확산 및 제도 개선에 기여 - 보건복지부·국토부 등 중앙정부 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군산간호대·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등 자문 및 연구 설문 참여 - 타 자자체에서 군산시 퇴원환자 연계 체계,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추진 관련 문의 대응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① 병원-행정 간 퇴원환자 전달체계 미흡 ○ 기존에는 읍면동 신청→사전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판정→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쳐 서비스 제공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어 퇴원 직후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어려웠음. ○ 이로 인해 퇴원 초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요양병원 재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요양병원에서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관련하여 부정적인 반응 ② 의료와 돌봄이 분절된 사례관리 ○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읍면동으로 퇴원환자를 연계하더라도 단순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의료·요양·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였음 ○ 의료·요양·건강관리 정보를 함께 검토하는 다학제 사례관리 체계가 미흡 ③ 방문진료 이용 활성화 저조 ○ 25~26년도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3개소로 신청했지만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꼭 방문진료가 필요하더라도 비용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④ 신규 국가사업(퇴원단기서비스)의 복잡한 연계절차 ○ 올해 신설된 국가사업으로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가사 및 영양식사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림 ○ 절차는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읍면동 신청→ 지역수행기관 심의 및 결정 → 거점수행기관 서비스 제공 등으로 1~2개월 소요됨
	극복 노력	① 퇴원환자 원스톱 연계 체계 구축 ○ 의료기관에서 읍면동이 아닌 통합돌봄계로 직접 의뢰하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퇴원 즉시 방문조사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함. ○ 의료기관 2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퇴원환자 연계체계를 구축함. ② 간호직 전문성을 활용한 통합사례관리 정착 ○ 간호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통합지원계획으로 연계함.

		○ 서비스 제공 후 의료기관에 결과를 회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재조정하는 환류체계를 정착시킴.
		③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고 재택의료센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④ 신규사업 조기 안착을 위한 서비스 빠른 연계 체계 완성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시스템 승인 후 서비스 제공'** 방식을 **'긴급 서비스 우선 제공 후 시스템 등록'** 방식으로 개선함.
	기타 에피소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 끼를 시작으로 의료와 돌봄이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를 연결한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뢰된 독거 퇴원환자를 방문조사한 결과, 퇴원 후 식사와 위생관리, 약물 복용이 모두 중단되어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확인하였다. 즉시 식사를 지원하고 보호자와 연계하는 등 긴급 대응한 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재택의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결과 회신을 통해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는 지원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대상자는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참고1 언론보도

군산시-의료기관 20곳, 퇴원부터 의료·돌봄서비스까지 OK!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44명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성과

이정은 기자 / 2026-07-13 09:04:41

군산시가 의료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퇴원환자의 의료·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을 추진하며 '통합돌봄공동체 군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 올해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2개소, 종합병원 10개소, 요양병원 4개소, 병원 4개소 등 총 20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퇴원환자 49건을 연계해 44명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퇴원 이후에도 의료와 돌봄이 단절되지 않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의료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를 발굴해 군산시 통합돌봄계로 의뢰하면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의료·요양·돌봄·주거·건강관리 등 분야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11개 지역특화서비스를 포함한 총 62종의 통합돌봄 서비스 자원을 활용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의료원을 통해 의뢰된 82세 독거노인은 퇴원 직후 통합돌봄 전담 인력의 가정방문을 시작으로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신청, 영양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연계 받았으며, 현재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공동체 군산'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 의료기관은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원광효도요양병원, 삼사랑요양병원, 행복한요양병원, 봄요양병원, 튼튼병원, 모세병원, 차병원, 성신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예수병원 등이다.

군산시-보건의료 5개 단체, 의료·요양 통합돌봄 '맞손'

11일 업무협약 체결, 거동 불편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선정근 기자 / 2025-12-11 13:59:13

군산시는 11일 보건의료 5개 단체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통합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 단체로는 ▲군산시 의사협회(회장 이강승) ▲군산시 치과의사협회(회장 문정) ▲군산시 한의사협회(회장 강성용) ▲군산시 약사회(회장 강종대) ▲군산시 간호사회(회장 성낙영) 등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 상호 정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 안내·참여 독려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적극적인 연계·지원 등 상호 협력과 자문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지역 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돌봄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의 위험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 복귀 및 재입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집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자체 중심의 방문형 의료·요양·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

사례내용	추진 배경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차등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서민층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추진 내용	1. **고유가 피해지원금 TF**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노력 2. 선불카드 발급기간(2~3주) 소요를 감안, 농협·전북은행과 **협약 및 사전주문**으로 조기 확보하여 사업 차질없이 추진 3. 고유가 피해지원금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 페이지 및 영상 제작** 4.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와 읍면동 담당자간 신속한 정보전달 및 소통을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개설·운영**
	주요 성과	1. 지원대상 201,849명 / 실 지급 199,988명 (지급률 99.1% 달성) 2. 지급액 403억 / 사용액 367억 (사용률 91% 달성, 7.5일 기준)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3월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4월 27일 지급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의 준비 기간밖에 없었음.** 이 짧은 시간 동안 2~3주가 소요되는 선불카드 확보 작업은 물론, 홍보와 읍면동과 소통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했기에 일정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음
	극복 노력	1. 읍면동 근무했을 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페이지 및 영상을 제작하였고, 일자리경제과-14278(2026.4.14.)호에 의거하여 읍면동 전파하였음 - 안내페이지 : https://app.notion.com/p/33e48e12f30e8053a836de505258732c

		- 안내영상 : https://youtu.be/aITzFQXM9RU?si=XN3r83XDt1i-vKqk 2. 선불카드 제작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다보니 추가발급시 적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었고, 전국에서 선불카드 발급이 동 시기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불카드 사전 확보가 중요하였음. 전북은행·농협 담당자와 4.8일 선불카드 확보 수량을 선점 요청하였고, 이후로도 은행관계자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지급 마감 기한까지 선불카드 지급에 어려움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음 3.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 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사업 지침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한편,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청취·반영함으로써 전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음
	기타 에피소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침 내용을 즉시 찾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일거라는 생각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페이지에 NotebookLM을 활용하여 검색페이지를 만들었고 사업 추진 초기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대부분 대외주의로 되어있어 보안에 유의하고자 관련 페이지는 비공개로 변경하였지만,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1 언론보도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

국민콜(권익위) 110

전담콜센터 1670-2626

군산 콜센터 454-4370 (4.24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상담센터 118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 1차 : 차상위,한부모 [50만원], 수급자[60만원] '26.4.27.(월) ~ 5.8.(금) / 5.18.(월) ~ 7.3.(금) * 차상위 한부모는 5.9.~5.17. 시스템 중단후 2차 기간동안 신청,지급 재운영
- 2차 : 소득하위70% [15만원] '26.5.18.(월) ~ 7.3.(금)
- 신청주체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지급방식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권자 : **(선불카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수령

※ **(본인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필요하며, 신청서 없이 접수 가능

※ **(대리신청)**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필요하며, 신청서 제출 필요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 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 사용기한 : 8월 31일(월) 24:00까지 사용 마감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 등
- 신청·지급시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1차> (월)1,6 (화)2,7 (수)3,8 (목)4,9,5,0/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5.1.노동절)

  <2차> (월)1,6 (화)2,7 (수)3,8 (목)4,9 (금) 5, 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참고자료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카오톡 오픈채팅 (PW 26722672) 프로필명은 부서명+이름으로 설정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사이트	https://www.notion.so/33e48e12f30e8053a836de505258732c?source=copy_link

참고2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제작영상

참고3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도자료

군산대표언론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0일(월) 14:23

군산미래신문

뉴스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교육/문화 행정 건강/스포츠 클릭이사람

사회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지급…전담 TF 구성

1차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5월 18일~7월 3일까지 신청

가- 가+

한정근 기자 / 2026-04-16 09:14:34

군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TF 및 콜센터를 구성·운영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들에게 지급된다.

전담TF는 부시장을 단장, 경제산업국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운영되며, 일자리경제과 중심의 총괄추진반,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행정지원반,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현장대응반으로 운영된다.

전담 TF는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선불카드 확보와 읍면동 인력·공간 배치 등 사전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2차에 걸쳐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60만 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50만 원)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팀부문 1

사전 안내로 기업은 안심하고, 성실납세를 이끈 예방 중심 세무조사

- Project Clear-Call -

<table>
<tr><th colspan="3">소 속</th><th>세무과 세무조사계</th></tr>
<tr><td rowspan="2">사례내용</td><td colspan="2">추진배경</td><td>❍ [Project Clear-Call]의미 : Clear(명확한 안내)와 Call(먼저 다가가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군산시 예방 중심 세무조사 모델
❍ 세무조사는 적발·추징 중심이라는 인식으로 기업의 심리적 부담 지속
❍ 조사절차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으로 반복적인 문의 및 행정부담 발생
❍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 지속
❍ 경기침체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사행정 필요
❍ '추징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 전환 추진</td></tr>
<tr><td>추진내용</td><td>사업부문</td><td>❍ 기업이 스스로 준비하는 세무조사 환경 조성
•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제작·배부 및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 조사절차, 제출서류, 감면 사후관리, 주요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업의 조사 준비 부담 완화
❍ QR코드 기반 디지털 세정 구현
• 군산시 최초로 세무조사 안내문에 QR코드를 도입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안내자료 게시
• 조사안내, 제출서식, 작성예시 등을 모바일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접근성 향상(조회 83회)
❍ 추징보다 예방 중심의 성실납세 유도
• 군산세무서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업 및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의무 사전홍보 실시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 강화
•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td></tr>
</table>

			❍ 기업은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는 엄정 대응 • 재난·재해 피해기업 및 중동사태 관련 피해기업 대상 **조사시기 선택제 운영** • 정기조사 50개 업체, 사례별 조사 16개 과제, 기획조사 2개 과제 추진 •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를 실현 ❍ 새로운 세원 발굴과 조사역량 강화 • 2015년 지방소득세 독립 이후 **최초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조사 추진** •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춘 신규 조사분야 발굴** 및 공정한 세원관리 기반 마련
		팀 노력	❍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기업 지원 중심 조사체계** 구축 ❍ **'조사 전 안내 → 조사 중 소통 → 조사 후 사후관리'** 중심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전북특별자치도 합동조사 확대(연 2회→4회) 및 조사기법 공유 ❍ 가이드북 제작, QR코드 도입 등 신규 시책을 팀원과 공동 기획·추진 ❍ 군산세무서·세무대리인과 협업체계 구축 및 예방 중심 세정문화 확산
	주요 성과		□ **계량적 성과** ○ **공정과세 실현 및 세수 확보** • 정기조사 50개 업체, 사례별 조사 16개 과제, 기획조사 2개 과제 추진 • 지방세 추징 : 2025년 17억 원, 2026년 6월 현재 7억 원 ○ **성실납세 문화 확산** • 과점주주 취득세 사전홍보를 통해 **자진신고액 증가** · 2024년 1억 원 → 2025년 25억 원(약 25배 증가) → 2026년 6월 현재 9.11억 원 • **과점주주 및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대상 세무 유의사항 홍보** · 추진방법 : 유관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시 홈페이지 게시 유관기관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홍보실적 : 총7,106건(과점주주 3,475건, 생애최초 3,631건)

<table>
<tr><td rowspan="2">업무담당자</td><td></td><td>○ 기업 중심 세무조사 환경 조성
•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 발간(100부 배부) 및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조회 626회)
• QR코드 기반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 운영
- QR코드 조회 : 83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이용 : 1,565회

□ 비계량적 성과
○ 기업과 함께하는 조사행정 구현
• 조사절차와 제출서류를 사전에 공개하여 기업의 조사 준비 부담 완화
• 조사시기 선택제 운영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 조사 전 안내–조사 중 소통–조사 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납세자 중심 조사행정 실현
○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 '적발·추징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 개선
• 시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세정 구현으로 납세자 편의와 정보 접근성 향상
• 사전 안내를 통한 자진신고 확대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
•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디지털 세정 기반 마련</td></tr>
<tr><td>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td><td>세무조사는 오랫동안 적발과 추징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들이 조사 자체를 부담스럽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사안내문만으로는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동일한 문의가 반복되었고, 과점주주 취득세 역시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QR코드 안내서비스와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선행사례가 거의 없어 처음부터 직접 기획·구성해야 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조사 역시 지방소득세로 변환된 이후 최초 추진 사례로 법령 검토와 조사기준 마련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td></tr>
<tr><td></td><td>극복 노력</td><td>단순히 민원에 답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업이 스스로 준비하는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절차와 제출서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법인조사 사전 안내 시마다 QR코드를 삽입하여 모바일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세무서 및 세무대리인과 협업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으며, 재난·재해 피해기업에는 조사시기 선택제를 적극 운영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td></tr>
</table>

		아울러 새로운 조사기법 발굴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조사를 추진하는 등 공정과세와 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에피소드	QR코드 도입 이후 기업 담당자들은 휴대전화만으로 조사서식과 작성예시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특히 과점주주 취득세 사전홍보는 **추징보다 예방이 더 큰 행정서비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진신고 증가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무조사를 **'징벌 중심'에서 '예방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 적극행정 사례**로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 기반의 디지털 세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1 언론보도

참고2 QR 코드 기반 비대면 서비스 운영 현황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QR

참고3 생애최초 · 과점주주 홍보 및 수납내역

군 산 시

수신 군산세무서장(재산법인세과장)
(경유)
제목 (과점주주)취득세 신고납부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주식변동 등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세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개요 :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간주취득세 신고납부
○ 신고대상 :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
※ 과세대상 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붙임 1.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
2. 취득세 신고서. 끝.

군 산 시 장

군 산 시

수신 군산지곡예미트폰파레이크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게첩 협조 요청

. 평소 세정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유의사항을 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이를 홍보하고자 하오니 본 홍보가 공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안내이 게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홍보 요청사항
가. 홍보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2월
나. 유의사항 안내문 게첩 : 통로(라인)별 게시판, 단체 채팅방 등
※ 입주민 대표님들을 통한 단체 채팅방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군 산 시 장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5.07.24 조회수 375

첨부파일 과점주주안내_구비서류및관련정보.hwp 미리보기
[별지제1호서식]취득세기한내 기한후신고서_주택무상 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 미리보기

항상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신고납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우)54076, 군산시 시청로 17,2층 세무과(조촌동,군산시청)
- (구비서류) 첨부 파일 참고
- (연락처) 063)454-2450, (팩스)063)454-6008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로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63)454-2450, 팩스 063)454-6008

세무과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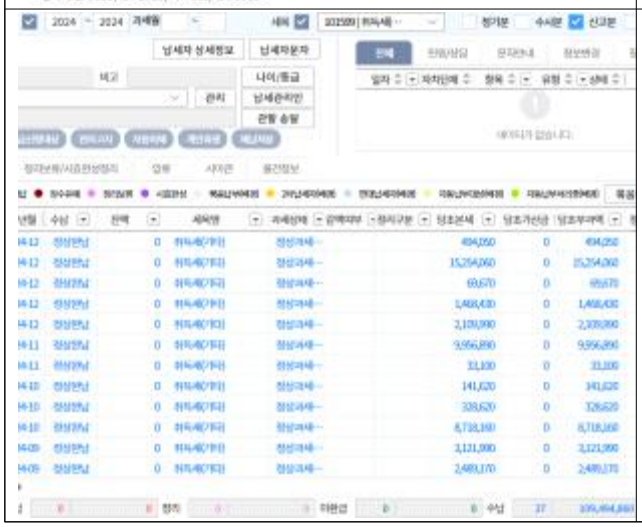
부서소개 부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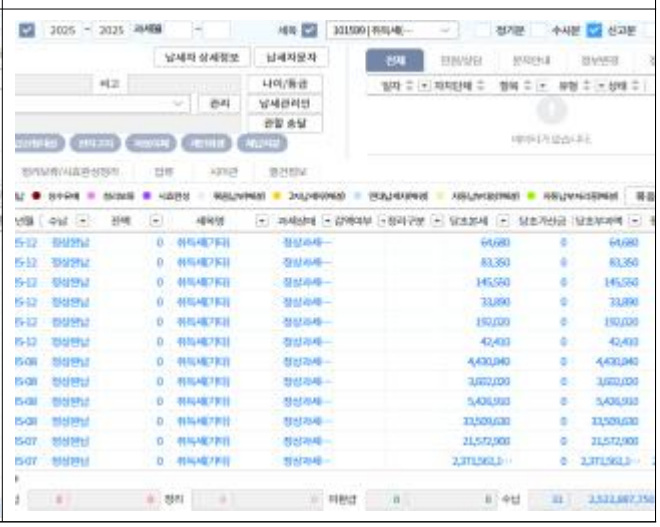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5.08.29 조회수 363

첨부파일 (안내문)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받으셨나요.hwp 미리보기
(관련법령)생애최초주택.hwp 미리보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법령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4 조사시기 선택제

■ 市, 2026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추진

공정 과세 · 납세자 권익 보호 중점…연말까지 단계적

2026-03-12 09:54

(+)글자크기 | (-)글자작

군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세무조사의 핵심 목표로 ▲지방세 탈루 방지 ▲공정 과세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조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중심 조사 절차도 운영한다. 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 ▲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 ▲조사 결과 신속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탈루나 재산 은닉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행복하는 자랑도시 군산

군 산 시

수신 정기세무조사 대상법인
(경유)
제목 **2026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통지 및 조사시기 선택 의견 조회**

1. 귀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 신고 및 부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귀 법인이 2026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일정에 대해 귀사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가능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하여 **2026년 3월 (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시기 선택: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정기세무조사 및 조사시기 선택 안내문 1부. 끝.

군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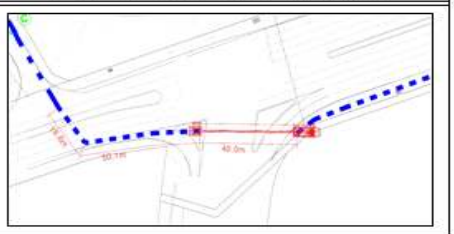
주무관 세무조사대장 세무과장 전결 2026. 3. 10.

팀부문 2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추가확산부지(4만평) 확보 및 기반시설조성 예산 절감 등 적극행정으로 전국적 K-시푸드 산업육성 선도사례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조성 사업 -

소 속		수산산업과 수산식품계
사례내용	추진배경	① **【수산식품단지 8만평 더크게! 도약! 필요성 제기】** ○ **(기존 4만평 분양완료)** 민간부지 필지 15개소(3만평) 전량 신청완료 ∗ **(입주기업 투자내역)** 11개소 - 약2,304억원 직접고용(예정)인원 : 549명 '새만금 수산식품 단지' 관리기관 군산시 지정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분양 완판 입주기업 모집 한달 만에 분양 완료 ○ **(추가 입주기업 지속 문의)** 수산식품단지 분양 완료('24.10월) 후 김 및 수산가공 입주기업 문의쇄도 등 (일본기업, 동양어묵 등) ∗ **(추가용지 입주수요)** 28개소(김산업분야 16개소, 고차가공 12개소) -전화 및 방문 ② **【기반시설(해수인배수) 공기단축 예산절감! 군산경찰서 상생협력】** ○ **(기존 비응항 굴착구간)** 군산경찰서 출퇴근 및 민원발생과 교통사고 우려, 굴착아닌 추진 공법 지속 주장(당초 대비 7.8억원 증가)

구 분	당초 계획(굴착)	변경 계획(굴착 및 추진공법)
계획도		
공사비	55백만원	835백만원(당초 대비 증 780백만원)
위치(변경)	비응소방파출소 앞 도로횡단	비응도입구 ~ 새만금방조제 사거리

사례내용	추진내용	사업부문
	① **【수산식품단지 8만평 - 적극행정으로 대안·방향성 지속 건의】** ○ **(개발청 SGF 계획 – 군산시 대안 제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선도적인 3대전략사업으로 글로벌 식품 수출허브 조성 위한 ⇒ **군산시 추가 4만평 총 8만평으로 새만금 수산식품 거점 역할 지속 건의**	

✱ (새만금개발방향) ①첨단전략산업 ②글로벌식품(SGF) ③관광·MICE 3대허브

❶ **(SGF 조기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중인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기점으로 SGF 계획 글로벌 식품허브 계획반영) 연계한 식품허브 거점 및 조기 활성화 가능

❷ **(역할분담 전략부지)**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역할분담 전략부지로 신항만 개발과 연계 글로벌 블루푸드테크 식품단지로서의 역할분담 가능

② 【기반시설 - 공사비 증액 및 사업지난, 경찰서 지속건의】

○ **(지속 건의)**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개착 공법을 지속 건의하였으나, 출퇴근 민원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한 군산경찰서의 추진공법 방침에 따라 비굴착(추진) 공법 적용 및 노선 변경 - 사업지난

팀 노력

① 【수산식품단지 8만평 확장위한 –약 1년 8개월 지속 개발청 협의】

❶ **(24년 12월~25년 상반기)** 육상김 등 상생 추가부지 상생협약 추진

❷ **(25년 하반기~26년 1월)** 추가 4만평 확보 행정절차 및 기본계획 협의

❸ **(26년 2월~ 현재) 추**가 4만평 기본계획 승인 및 위임고시 완료

구 분	관리기본계획 당초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위 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산 46-1~8번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오식도동 1107~8, 1122~8 지번부여 및 오식도동 1127 추가
면 적	133,000㎡(4만평)	266,077㎡(8만평)
평면도		

② 【기반시설(해수인배수) 예산절감! 경찰서 상생협력 강조】

○ **(애로사항 지속 건의)** '25.07.30.(1차), '25.08.11.(2차), '25.08.14.(3차) 등

❶ 추진방법 시행시 **공사기간 과다소요(약7일→약50일)**로 현장혼잡(적치물 및 장비) 및 교통민원 추가발생 우려

❷ 국비 미지원 순수 **"지방비" 약7.8억 추가예산확보 지난** (지방채발행 등)

❸ 해수(海水) 사용업체 입주(준공) 및 가동 - 조속 사업완료 필요

주요 성과

① 【수산식품단지 적극행정 추가 4만평! 더 크게 8만평 도약】

○ **(추가 4만평 부지 미래신산업 반영)** 육상김 스마트양식 기본계획 반영

○ **(개발청 추가 4만평 → 8만평 위임고시)** 26. 7월9일 개발청 위탁고시 완료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시행 2026. 7. 9.]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6-18호, 2026. 7. 9.,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산업진흥과), 063-733-1258

1. 관리업무 위탁 산업단지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신설)
나. 관리면적 : 266,073㎡(신설)

2. 수 탁 자 : 군산시(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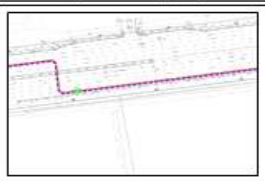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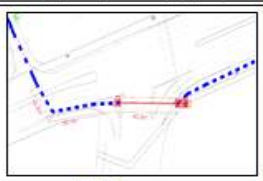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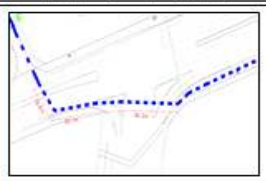
3. 위탁업무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업무(변경없음)

4. 재검토기한 : 새만금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3월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새만금개청장"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변경

부칙 <제2026-18호, 2026. 7.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찰서 상생 협력 중재안 반영 → 전 구간 굴착, 예산절감! 5.6억원】

○ **(최종 중재 협의 노선 반영 추진)**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군산을 알릴 가치있는 사업으로 군산경찰서도 협업지원 최종협의한 노선으로 도로굴착(추진제외) 반영 사업시행중 ('26.6월~)

구 분	당초 - 굴착	경찰서 요구(안)	군산시 제시(안)
위 치			
공사연장	굴착 L=22m	굴착 L=69m 비굴착(추진) L=40m	굴착 L=109m
공 사 비	55백만원	**835백만원** (증 780백만원)	**275백만원** (증 220백만원)
공사기간	약7일 소요 (가시설, 굴착 등)	약50일 소요 (가시설, 굴착, 추진 및 도달기지, 반력벽 등)	**약18일 소요** **(가시설, 굴착 등)**
교통소통	· 2차선 통제 및 작업 (출퇴근 시간 공사중지)	· 1일 1차선 통제 및 작업 (출퇴근 시간 공사중지) · 교통섬 및 인도 통제	· 1일 1차선 통제 및 작업 (출퇴근 시간 공사중지) · 교통섬 및 인도 통제
지장물조사 및 토지협의	· 기 지장물 조사 완료	· 교통섬 및 인도 지장물 조사 필요 · 농어촌공사 추가협의	· 교통섬 및 인도 지장물 조사 필요
공법적용			◎

<table>
<tr>
<td rowspan="3">업무담당자</td>
<td>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td>
<td>① 【수산식품단지 적극행정 추가 4만평! 육상김 스마트양식 인식변화】
○ (산업단지 내 수산양식업 불가) 새만금 산업단지내 육상김 스마트 양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 많았지만, 이제는 '스마트 양식' 선도하는 산업으로 간주
⇛ 개발청 적극업무 및 법령개정(산업입지법 개정) 공동업무 추진중

새만금개발청의 8만평 확대 및 육상김 스마트양식 홍보('26. 7월)</td>
</tr>
<tr>
<td>극복 노력</td>
<td>② 【해수인배수 관로시설 공기단축 예산절감! 적극행정 복합방식 제시】
⇛ 새만금대로는 도로폭이 넓고 차량속도가 빨라 도로횡단 공사시 사고위험으로 군산경찰서 협의 절대불가 및 추진(지하관로굴착)방식 고수
- 적극행정 복합방식 제시 : 새만금방조제 입구 비응항사거리는 차량속도 줄어 사고위험이 적은점을 착안 비응항입구 ~ 선유도 방향 우회 횡단노선 협의안 제시 및 설득 ⇒ 공사기간단축(약50일→18일), 예산절감(875→275백만원)
 </td>
</tr>
<tr>
<td>기타 에피소드</td>
<td>① 【수산식품단지 성공사례 – 전국 지자체 선진지 방문 및 문의 지속】
○ 전국 지자체 김산업 추진전략 및 식품단지 조성절차·방법 문의 및 방문쇄도
-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 / 충청남도 서천시 / 경상북도 / 경기도 안성시 등</td>
</tr>
</table>

팀부문 3

계약 만료된 장사시설에 기간 연장 스티커 부착으로 세외수입 증대

<table>
<tr><th colspan="3">소 속</th><th>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th></tr>
<tr><td rowspan="4">사례내용</td><td colspan="2">추진 배경</td><td>장사시설(추모관.공설묘지) 기간이 만료됨에도 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연고자가 다수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 및 세입예산 감소
- 우편으로 기간 연장 통보(연고자 부재 또는 사망, 주소지 불분명 등)
- 추모관 및 공설묘지 내 현수막 부착(방문자들 무관심에 효과 미비)</td></tr>
<tr><td rowspan="2">추진내용</td><td>사업부문</td><td>장사시설(추모관.공설묘지) 연고자에게 우편물 또는 현수막 게첨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으나 기대효과가 미약한 실정.</td></tr>
<tr><td>팀 노력</td><td>설 명절 및 추석 명절에 추모객들이 1회 정도는 방문할 거라 판단하여 대상 시설물에 기간 연장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추모객이 인지하고 자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
- 장묘시설 직원들이 연장 대상자를 발췌하여 명절 전 추모관 봉안함, 공설묘지 비석에 기간 연장 스티커를 부착하여 연장 사용료 납부유도</td></tr>
<tr><td colspan="2">주요 성과</td><td>추모관 및 공설묘지 사용료 세입예산 증대 기여
(성과 전)'25년 추모관 274,498천원, 공설묘지 사용료 48,700천원
(성과 후)'26년 추모관 300,085천원, 공설묘지 사용료 161,300천원
※ 스티커 부착으로 매년 수입 증가 및 전년 대비 약 138,187천원 세입 증대</td></tr>
</table>

업무담당자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추모관 및 공설묘지 기간 연장을 우편물과 현수막 게첨 등으로 안내하였으나 연고자들은 사전 예고 없이 스티커를 부착했냐는 불만과 알아서 처리하라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함
	극복 노력	이번 추모관 및 공설묘지 기간 연장을 추진함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문의(방문 또는 유선)가 빗발치는 등 일일이 대응하여 관련법에 따라 향후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유가족이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음.

참고1 스티커 부착 사진

추모관 기간연장 스티커

공설묘지 기간연장 스티커

팀부문 4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로 범죄예방 CCTV 인프라구축

- 지역치안안전협의체를 통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

<table>
<tr><th colspan="3">소 속</th><th>스마트도시과 영상정보계</th></tr>
<tr><td rowspan="3">사례내용</td><td colspan="2">추진배경</td><td>❍ 우리시 신축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 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의 허가 조건의 한계점 극복 해결방안 의지
❍ 신규 공동주택 준공 후 생활형 범죄 및 사건·사고 지속적 증가
❍ 입주민 민원 해결 및 안전 확보 필요성 대두
❍ 시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통한 효율적 인프라 구축 필요</td></tr>
<tr><td rowspan="2">추진내용</td><td>사업부문</td><td>❍ 내흥동 공동주택 영무예○움 아파트
- 방범용 CCTV 1개소 4대 설치 및 이관 ⇒ 약 2,300만원 절감
❍ 지곡동 한라에○트 1차 아파트
- 어린이보호구역 법정의무사항 누락에 따른 방범용 CCTV 1개소 3대 설치 및 이관 완료 ⇒ 약 2,000만원 절감
❍ 조촌동 경남○너스빌 아파트
- 방범용 CCTV 2개소 7대 설치 후 이관 예정 ⇒ 약 4,500만원 절감
☞ 총 약 8,800만원 예산 절감 효과</td></tr>
<tr><td>팀노력</td><td>❍ (팀노력 1) 신규 공동주택 허가 조건 법령 해석 및 접근방안 모색
- 건축법 ·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범죄예방 시설 설치 권고 근거 마련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법률 비교 : 범죄 예방 시설 협의 '권고성' / 교통 시설 협의의 '강제성'</td></tr>
</table>

			❍ (팀노력 2) 신규 공동주택 준공 후 사건·사고 증가 관련 민원 해결 가능 -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생활범죄 증가 예방을 위한 범죄 발생 현장 진단 및 112 신고·범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와 사전 협의로 설치 가능 ❍ (노력 3) 유관기관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및 공동주택 건설사 사전 협의체 구성 - 공동주택(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범죄예방 설계 반영 권고 - 군산경찰서(CPO팀), 군산시청(영상정보계), 건설사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구성 ❍ (노력 4) **공동주택 건설사 협의에 따른 예산 절감** - 공동주택 단지 외곽 경계부 등 취약 구간, 방범용 CCTV·비상벨 등 설치 - 건설사 설치 후 통합관제센터로 이관 ⇒ 24시간 365일 관제체계 구축
	주요 성과		❍ **전북 최초** 공동주택 허가 시 **CCTV 설치 권고**를 **협의 대상**으로 접근 ❍ **민간 건설사 설치 및 이관 ⇒ 시 통합관제센터 연계 ⇒ 24시간 관제** ❍ 추후 공동주택 허가 사전협의 **시 군산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협업**을 통해 CCTV 설치 예산을 절감, 다른 범죄취약지역에 재투입 가능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범죄취약지역 분석 결과 방범 인프라(CCTV·비상벨 등) 설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대두 ❍ 신규 공동주택 건설사에 범죄예방 CCTV 등 설치를 권고했으나, 설치비 부담으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음 ❍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협업 대응을 위해 주기적인 업무협의 의견조율 ※ 준공된 공동주택 일원에서 CCTV 추가 설치 요구 발생

	극복 노력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부서에 장기간 근무중 민원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및 각종 교부세 확보하고자 노력 -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능형 노후 CCTV 성능개선 7억원 확보 -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생활안전도시 스마트 폴 CCTV 설치 3억원 확보 -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47백만원 확보 등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담당자로서 고민하던 신축 공동주택 건설사들이 방범 CCTV 시설물을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사전협의하고 매월 우리시와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에 설치 요청 틀 마련**
	기타 에피소드	❍ 우리팀은 같은 과내에서 근무중인 지능형교통계와 교통시설계가 공동주택 건설사들와 교통시설물 설치를 사전협의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영상정보계는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을까?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해 **지역치안공동체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 부족속에서도 최선의 효율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건설사와 협력**해 **CCTV 설치 부담을 분담**하고, **설치 후**에는 **시 통합 관제센터로 이관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범위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건설사와의 협력으로 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범죄취약지역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팀은 적극행정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는 **민간 건설사 참여와 기관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군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1 내흥동 공동주택 영무예○움 아파트

군산시 방범카메라 설치 사진

[군산시 내흥동 1118번지 한라비발디 버즈승강장 근처]

시공 사진

시공완료

참고2 지곡동 한라에○트 1차 아파트

사 진 대 지

공 사 명 :	군산 지곡동 126번지 일원 기부채납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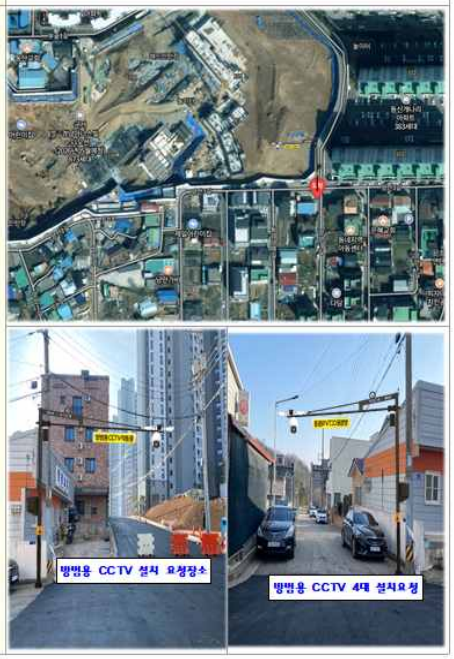
사진설명	공사 완료 후 전경

사진설명	공사 완료 후 전경

참고3 조촌동 경남○너스빌 아파트

공동주택(경남아너스빌)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요청장소

1. [조촌동] 부라더카센터 사거리

설치요약	• 조촌동 930 범죄예방 방범용 CCTV 4대 설치
위치도 및 사 진	

2. [조촌동]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삼거리

설치요약	• 조촌동 906 범죄예방 방범용 CCTV 3대 설치
위치도 및 사 진	

팀부문 5

단속보다 소통으로,
학생 통학로를 시민에게 돌려주다

– 역전 새벽시장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협업 캠페인 –

<table>
<tr><th colspan="3">소 속</th><th>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 건설과 도로관리계</th></tr>
<tr><td rowspan="4">사례내용</td><td colspan="2">추진배경</td><td>❍ 역전종합시장 인근 새벽시장은 새벽노점의 도로 및 공영주차장 점유가 장기간 지속되어 학생 통학시간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시민 불편이 반복됨
❍ 생계형 노점 특성상 강제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고, 여러 부서의 권한이 얽혀 단일 부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민 안전과 상인의 생계를 함께 고려하는 협업형 해결방안을 마련함('25. 2.월부터 시행하여 신년 개학기에 추진)</td></tr>
<tr><td rowspan="2">추진내용</td><td>사업부문</td><td>①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교육지원과, 흥남동, 군산경찰서, 교육지원청 협업체계 구축
② 상인회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자율철수 및 자율질서 확립 유도
③ 홍보→계도→민관합동 캠페인의 단계별 추진
④ 학생 통학시간 이전 영업 종료와 통행로 확보 집중 관리
⑤ 현장 중심 행정으로 지속 점검체계 운영</td></tr>
<tr><td>팀노력</td><td>❍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여 일자리경제과는 총괄기획과 상인회 협의를 담당하고, 건설과는 도로점용 지도,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관리, 교육지원과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협조, 흥남동은 현장홍보, 군산경찰서는 질서유지를 수행하였다. 단속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 조정과 협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td></tr>
<tr><td colspan="2">주요성과</td><td>① 학생 통학로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②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
③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개선
④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⑤ 상인 자율참여 문화 조성
⑥ 단속 중심 행정에서 예방·소통 중심 행정으로 전환</td></tr>
</table>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과 생계형 노점의 특성으로 강제단속 시 집단민원과 갈등이 예상되었으며, 도로점용·교통·교육·치안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업무 조정이 쉽지 않았음
	극복 노력	○ 담당자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상인회를 지속 설득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주도하여 역할을 조정하였다. 단속보다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는 단계별 추진으로 시민 안전과 상인의 생계를 함께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음
	기타 에피소드	○ 이른 아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상인들과 소통하였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업행정을 이끌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었음.

참고1 언론보도(역전 새벽시장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협업 캠페인)

군산시, 안전한 등굣길 조성 나서

市, 군산경찰서, 교육지원청, 중앙초와 역전종합시장 인근서 캠페인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 2026.03.03 13:51:32

군산시는 3일 중앙초등학교부터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구간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학로 내 보행 안전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과, 교통행정과는 지난 2월부터 부서별 단계적 계도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경찰서와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중앙초등학교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홍보 전단을 활용해 상인과 시민들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새벽시장 내 노상 적치물 정비와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힘썼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새벽시장 내 불법 도로점용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팀부문 6

군산 갑오징어, 자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가 되다

- 수산자원조성에서 자원가치 창출까지, 군산 갑오징어 고도화 사업 -

소 속			어업정책과 어업자원계
사례내용	추진배경		❍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인한 자원감소 등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조성이라는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지역행사·관광·산업 등과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음. ❍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지역행사와 결합한 갑오징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도모하여 군산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추진내용	사업부문	❍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고도화 -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및 종자방류사업과 병행한 고도화 사업 추진 - 단순 자원조성 중심에서 시민 체감형 어업정책으로 사업방향 전환 ❍ 군산 갑오징어 자원의 가치 제고 - 군산 갑오징어 캐릭터「갑토리」개발 및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 - 군산 갑오징어 상표, 디자인, 산란·서식장 조성기법 특허 등록 추진 ❍ 시민참여형 사업 확대 - 바다의 날과 연계한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선포식 개최 -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행사 운영 - 10월의 마지막 밤, 갑·맥(갑오징어+맥주)파티 개최 - 지역행사 중 갑오징어 홍보부스 운영,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외 홍보 ❍ 협업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지역 어업인과 협력하여 자원조성사업 추진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와 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 협업

		팀 노력	❍ **(담당계장)** : 군산시의 대표 고부가가치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홍보 캐릭터 '갑토리'의 육성 배경에는 자원 회복과 브랜드화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군산시청 어업자원계장(담당 계장)의 행정적 노력과 전국노래자랑 인형탈 홍보 및 김차동의 라디오 출연등 직원이 꺼려하는 부분까지 실천함 ❍ **(직원)** : 갑토리 탄생부터 홍보과정에서 부서원과 함께 적극 협조함
	주요 성과		❍ 자원조성 성과(한국수산자원공단 협력) - 3개소(연도·비안도·방축도 해역)에 산란시설물(통발) 조성 900개 - 갑오징어 종자 3개소(연도·비안도·방축도 해역) 방류 176,641미 - 갑오징어 유도형 산란장 조성 10세트 ※ 연230t까지 하락했던 자원량이 연650t까지 회복 ❍ 지식재산 성과 -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캐릭터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1식 -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등 관련 상표, 디자인, 특허 등록 10건 ❍ 행사운영 성과 - **체험형 행사인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 개최 1회** - **전국최초 바다의 날 연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 및 선포"개최 1회** - **식품산업과 연계한 10월의 마지막 밤, 갑·맥파티 개최 1회** - 시민참여형 홍보부스 회 운영 ❍ 대외홍보 성과 - **언론보도 건, SNS 홍보콘텐츠 제작 건 및 홍보 SNS운영·관리 1식** - **군산 갑오징어 홍보물품 개발** - **군산 갑오징어 홍보동영상 제작 1편, 갑토리송 2편 제작** - **KCN 대담 1회** **※ 갑오징어도시 군산,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 군산이 인식되어짐** **※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힘** ❍ 협업 성과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갑오징어 음식개발 1건** **군산 갑오징어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용 숏폼제작 2편**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후 서식환경 조성까지가 기존 우리의 역할이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산 갑오징어를 혹산도 홍어, 영광굴비처럼 군산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활성화하고자 '갑토리' 캐릭터 개발 등 브랜드화 단계까지 우리의 역할을 넓힌 사례여서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라 추진이 쉽지 않았음
	극복 노력	❍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였으나 우리과의 구성원 더불어 비슷한 업무를 했던 타부서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여 단계를 밟아 추진
	기타 에피소드	❍ '갑토리'라는 갑오징어 캐릭터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갑산이', '갑둥이' 등 매력있는 캐릭터명이 가끔 생각남. ❍ 군산수제맥주축제, 갑맥파티, 전국노래자랑,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류행사 등 갑토리 인형탈이 시민·어린이와 만날때마다 환영받음

참고1 언론보도(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아이뉴스24 · 2025.06.02. · 네이버뉴스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본격화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다. 2년차 사업에서는 갑오징어 은신처와 알 산란장 제공을 목적으로 산란...

군산시, 옥도 해역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본격화' 투어코리아뉴스 · 2025.06.02.
군산시,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NSP통신 · 2025.06.02.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순항' 전라일보 · 2025.06.02.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2년 차 본격화...올해 8억... 뉴스1 · 2025.06.02.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11건 전체보기

전민일보 · 2025.06.03.

군산시,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순조... **사업** 2년 차 본격화

군산시가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펼치면서 수산자원 증대와 어민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으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군산시, 옥도면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 신아일보 · 2025.06.03.
군산시, **갑오징어 서식장 조성** 박차...5년간 총 40억원 투입 한스경제 · 2025.06.03.
'**갑오징어** 많이 들라'...군산에 **산란**시설물 900개 설치 파이낸셜뉴스 · 2025.06.03. · 네이버뉴스
군산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 브랜드화 총력전 전북중앙 · 2025.06.03.

참고2 언론보도(어린이와 함께하는 종자방류 및 갑토리의날 선포)

군산 어린이와 함께하는 종자방류

군산시, 전국 첫 '갑오징어 도시' 선언

군산시는 9일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 및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단순한 기념행사...

전북도민일보 · 2025.06.18.

군산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 방류 체험행사 펼쳐

군산시는 18일 비응항 일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갑토리(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종자 방류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시는 18일 비응항 일원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갑토리(갑오징어 홍보 캐릭터) 종자 방류 체험...

군산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 방류 체험행사 신아일보 · 2025.06.18.
군산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 방류 체험행사 개최 전민일보 · 2025.06.18.
군산시, 갑오징어 종자 방류 체험행사 개최 NSP통신 · 2025.06.18.
'어린이 손으로 바다로' 군산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 2천마... 한겨레 · 2025.06.18. · 네이버뉴스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뉴스핌 · 2026.06.10.

군산시, 국내 첫 '갑오징어 도시' 선포...수산·관광 융합 브랜드 ...

군산시는 전날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 및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갑토리의날 선포식[...

대한민국 최초 '갑오징어 도시' 군산시, 갑토리의 날 지정... 프레시안 · 2026.06.10. · 네이버뉴스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 전북중앙 · 2026.06.10.
군산시, 대한민국 최초 '갑오징어 도시' 선포... '갑토리의 날' 성황 전민일보 · 2026.06.10.

신아일보 · 2026.06.11.

군산시, '갑토리의 날' 선포...갑오징어 도시 브랜드 육성 나선다

군산시는 지난 9일 비응항 일원에서 시민과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갑오징어 종자방류 체험 및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갑...

참고3 언론보도('갑토리' 홍보행사 / 갑토리 송 / 라디오출연)

N 군산 갑토리 (홍보)

신아일보 · 2026.02.05.

군산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갑토리 홍보**행사 개최

도시 **군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군산**시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갑토리**를 활용해 관광, 축제,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 마케팅을 ...

군산시 '**갑토리**' **홍보** 행사 진행 로이슈 · 2026.02.05.

군산시 특산품 갑오징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홍보** 행사 가져 전북도민일보 · 2026.02.05.

군산시, 서울 도심서 지역 대표 수산물 '**갑토리**' **홍보** 전북중앙 · 2026.02.05.

전라일보 · 2026.05.26.

"따라 부르며 즐긴다"... **군산**시, AI 음악으로 '**갑토리**' **홍보**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갑토리**를 알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군산** 대표 수산물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토리**송...

군산시, AI 활용한 '**갑토리**송' 제작...갑오징어 브랜드 **홍보** 강화 신아일보 · 2026.05.26.

"쫄깃탱글 바다황제 갑오징어♬" **군산**시 '**갑토리**송' 제작... 연합뉴스 · 2026.05.26. · 네이버뉴스

군산시, AI 활용 갑오징어 **홍보** 가요 '**갑토리**송' 제작 뉴시스 · 2026.05.26. · 네이버뉴스

군산시, 갑오징어 캐릭터 개발·상표등록 이어 노래까지 제작 전북중앙 · 2026.05.26.

관련뉴스 6건 전체보기

전민일보 · 2025.09.04.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라디오 통해 **홍보** 나선다

군산시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 '**갑토리**'가 라디오에 진출했다. 시는 갑오징어 **홍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차동의 FM모닝쇼'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김차동의 FM모닝쇼는 무려 20여...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 라디오에 출연한다 아이뉴스24 · 2025.09.04. · 네이버뉴스

군산 갑오징어'**갑토리**'라디오 전격 출연 신아일보 · 2025.09.04.